

Sulwhasoo

Vol.61 March/April 2014



꽃의 수저 시리즈와 기형도



韓

雪花秀

피부의 다섯 가지 균형을 바로잡아야
속부터 우러나는 촉촉한 윤기를 얻는다

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음의 기운이 부족해져, 피부의 윤기를 잃게 됩니다.
피부 속 부족한 기운을 채워 흐트러진 피부균형을 맞춰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귀한 원료들의 조화로 탄생한 자음단이 생기, 탄력, 투명, 자생력, 영양까지
피부의 다섯 가지 균형을 맞춰 건강한 피부에서 우러나는 촉촉한 윤기를 완성해줍니다.
이제 겉으로만 빛나는 윤기를 넘어 피부 깊이 차오르는 윤기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피부 속부터 건강하게 우러나는 촉촉한 윤기로, 피부의 격이 한 층 더 높아집니다.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설화수 윤조에센스

Sulwhasoo





왼쪽 페이지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4호 장장 이응구와 그의 막내아들인 이경동의 솜이 중 두드림, 나눔, 울림, 다솜 수저와 도예가 최홍선의 작품 '기형도'.
오른쪽 페이지는 울림 접시와 '갓'.

빛이 울림 담기 시리즈와 기형도



낭랑하다

The brassware of Korean sentiment and craftsmanship coupled with the ceramic art completed with the historical ceramic in the 2D plane, compose “Nangnang.” Nangnang means “clear sound” or “very bright light.” The brassware, completed with much effort and over a long time as the beautifully clear skin of women and white ceramic art, representing the modern perspective of the harmony between inside and outside, displays the harmony of clarity. Brassware master Yong Goo Lee, the 14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Gyeongsangnam-do Province, and his youngest son, Kyung Dong Lee, suggest the true value, benefit, and use of brassware for the modern dining culture and lifestyle. Ceramic artist Hong Sun Choi reflects the truthfulness of humans in ceramic based on the historical interest in and affection for it on account of its sublime beauty.

한국인의 정서와 장인 정신이 집약된 유기 작품과 우리 역사 속 하얀 도자를 평면의 작품으로 완성한 도예 아트가 만나 '낭랑(嬢嬢)'을 이룬다. '낭랑하다'는 '소리가 맑고 또랑또랑하다'와 '빛이 매우 밝다'의 의미로 해석된다. 여인의 투명하고 아름다운 피부처럼 오랜 공들임으로 완성되는 유기 작품과, 내면과 외면의 조화로운 삶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완성한 도자를 통해 낭랑함의 조화를 표현했다.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4호 징장 이용구와 그의 막내아들인 이경동은 유기그릇의 진정한 가치와 장점, 다양한 쓰임새를 현대적인 다이닝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로 제안하고 있다. 도예가 최홍선은 우리 역사 속 도자 형태의 미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토대로 인간의 내면과 외면의 조화를 도자에 담아내고 있다. S

표지는 손울림 담기와 기형도 뒤표지는 가지런히 촛대와 '것' 시리즈 오른쪽 페이지는 가지런히 합

에디터 김미경 사진 이종근 세트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아영 작품 노트 가지런히 빛이(02-736-6262), 정소영의 식기장(02-541-6480)



한국 문화 읽기	자개 Mother-of-pearl	06
집 안 단장	복을 부르는 습관	10
몸 단장	보라색에 취하다	12
피부 섬기기	모든 여성의 피부에 윤과 결을 허하라	14
설화수와 인연을 맺다	반도네온 연주가 고상지, 하루를 채우듯 담담하게	18
격조 높은 삶	봄꽃에 취하다	24
삼진날 엿보기	삼진날, 봄에 물들고 꽃에 취하다	26
어우러지다	꽃길 따라 봄날 산책	30
살펴보다	여인들, <화전가>를 부르다	38
세밀하게 보다	기운생동 황금빛이로다!	40
설화수의 사계	봄을 부르는 노래	48
월드 헤리티지	도자기 위로 깃털을 날리다, 리모주	52
아트 클래스	줄리언 오피가 그린 도시인의 강렬한 초상	58
잇다	불편을 이겨낸 아름다운 늦그릇, 방짜유기	64
설화보감	봄을 맞으니, 몸이 깨어나다	70
설화수를 말하다	자정, 하얀빛을 머금다	76
설화도감	오, 나의 봄 이야기	80
미색보감	피부의 귀환을 알리는 하얀빛 다스림	84
설화과학	이백 년을 내려온 아름다운 비법	86
마음 단장		88
문화 즐기기		92
설화수 뉴스		93
Insides Sulwhasoo		94
독자 선물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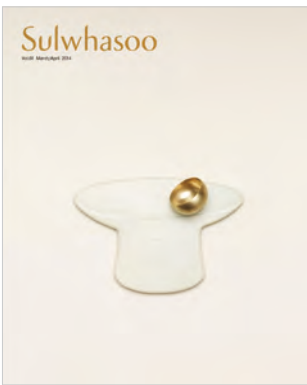
Sulwhasoo

March/April 2014

자연과 상생하는 빼어난 아름다움, 설화수

설화수의 시작은 바로 한방 화장품의 역사와 함께 합니다.
 한방 화장품의 대명사라는 명성을 얻기까지는 여성의 피부에 대한 애정과
 한방 성분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우리 땅에서 움트고 자란 순수한 국산 한방 성분만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는 설화수의 자존심입니다.
 이 땅의 좋은 한방 성분을 찾기 위한 노력과 애환이 제품 하나하나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설화수의 이러한 역사와 철학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고집과 신념을 지닌 채 계속되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며 상생(相生)하는 설화수의 정신은 옛 여인들이 지닌 아름다움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물의 시작은 자연입니다. 자연에서 취한 것을 통해 아름다움을 가꾸고,
 자연과 하나되는 자연과의 상생, 이것이 바로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감입니다.

고은여성문화지(古恩女性文化誌) <Sulwhasoo>는 에스려운 것을 사랑하는 여성을 위한 문화 교양지를 뜻합니다.
 전통적인 것이 선사하는 단아함을 현대적인 미감과 접목한 전통과 현대의 상생을 추구합니다.



Sulwhasoo, which conveys the Asian philosophy and Korean wisdom, has combined the aesthetic appeal of both harmony and accord. The cover of this issue of Sulwhasoo magazine seeks this combination through the Harmony and Balance of a Korean traditional master and a contemporary artist. The Mar/Apr issue has created 'Nangnang' through the work of Yong Goo Lee, the 14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Gyeongsangnam-do Province, and his youngest son, Kyung Dong Lee, and Ceramic artist Hong Sun Choi.

아시아의 철학과 한국의 지혜를 담은 설화수는 조화와 균형의 미학이 담겨 있다. 설화수 매거진의 표지에서는 한국 전통 장인과 현대 작가의 작품이 빛어내는 '조화와 균형'을 통해 조화로운 어울림의 미학을 찾아보고자 한다. 3/4월호에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4호 징장 이용구와 그의 막내아들인 이경동의 유기와 도예가 최홍선의 작품이 어울려 '낭랑(嬢嬢)'을 소개한다.

●발행인·서경배 ●편집인·유재천 ●발행처 (주)인팩 (주)인팩·서울시 중구 창계천로 100번지 시그니처 빌딩 ●제작·Luxury MC 팀 ●문의·문산영 02)879-3541
 ●편집, 디자인·Solution Co., Ltd. ·서울시 강남구 청담2동 85-3 남원강빌딩 3층·Vip Marketing Dept. 02)3443-6923 www.ineighbor.co.kr 편집·김미경 정순영 나보미 디자인·조윤희 ●발행일·2014년 3월 1일(통권 제61호) ●사진·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Scan & Photoengraving Ing Process ●인쇄·(주)태산인팩 02)853-6574 www.inpack.co.kr 인쇄인·서경현

<Sulwhasoo>는 한국은행물류관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격월간지로서 월간 <Neighbor>를 발행하는 Solution Co.에서 제작 대행하고 있습니다.

자개 Mother-of-pearl

영롱하게 빛나는 몸체와 그보다 큰 노력



어르신 댁에 하나쯤 놓여 있던 자개장을 기억하는지. 그 화려함과 고유한 빛깔은 보는 이로 하여금 단박에 본인을 기억하게 하는 개성을 지녔다. 하지만 요즘 자개는 이따금 장신구의 소재로 쓰이거나 갤러리에서나 찾을 수 있는 만나기 힘든 상대가 됐다.

조선시대까지 자개의 발전된 의미인 '나전'은 주위에 있는 생활 요소였다. 디자인과 소재에 따라 아주 귀하거나 아주 평범한 것으로 나뉘어 쓰였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곁에 있는 친구이자 귀한 날 흔한 날 가리지 않고 본인의 역할을 하는 충신이었다. 머리를 빗을 때 보는 경대에, 차를 마실 때 소반에, 옷이나 이불가지를 보관할 때 서랍장으로, 가장 귀한 것을 담아 성의를 표하는 혼수 함에 늘 존재하는 일상이었다.

나전의 음절을 풀이하면 소라(螺), 비녀(鈿)의 뜻이다. 오늘날 자개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나전은 전복이나 진주패 같은 패각을 얇게 오려서 기물의 표면을 장식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여기 옷칠을 하고 쓰임새가 있는 기물로 탄생시킨 것이 바로 '나전칠기'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전칠기가 고려시대부터 널리 쓰였는데 12세기 무렵부터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전하며 특색을 갖췄다.

고려 11세기 문종이 요(遼) 왕실에 나전기를 선물로 보냈다는 내용이 <동국문헌비고>와 <해동역사> 등에 기록되어 있다. 해외 교역이 활발해진 12세기 초부터는 고려의 나전 제품이 거래 품목으로 빈번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처럼 국외 선물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자랑할 만큼 특산물임을 뜻한다.

고려시대 나전칠기의 특색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나전의 '끓음질' 무늬에 있다. 모양이 다듬어지기 전 상태인 것을 '원패'라고 하는데 이 종류는 3천여 가지 이상으로 어마어마하며 두께가 너무 얇지 않아야 특유의 영롱함이 뿜어져 나온다. 원패 중 채택되어 잘린 상태인 '절문'

Do you remember seeing a mother-of-pearl wardrobe at your grandparents' house? Its glamorous and original luster instantly makes an unforgettable impression on its viewers. Today, however, mother-of-pearl is scarcely used for accessories or found in art galleries.

Najeon, the traditional mother-of-pearl, was often used as an everyday good until the Joseon Dynasty. It was classified into those with very rare designs and materials, and very ordinary ones, but it was still a close friend that was always around from morning till evening, for special occasions and mundane activities. It was always found on mirror cases, tea tables, drawers for clothing and beddings, and wedding gift cases. Najeon is a combination of turban shells and Binyeo (hairpin). Referring to today's mother-of-pearl, Najeon is made up of thinly cut shells or abalone or pearl oysters to ornament the surface of goods. Najeonchilgi is the practical mother-of-pearl commodity with lacquer coating.

Najeonchilgi was widely used in Korea from the Goryeo Dynasty. It developed independently, without Chinese influence, from the 12th century. Dongguk Munheonbigo and Haedongyeoksa record that Goryeo King Munjong sent Najeon Ware to the Royal Family of the Liao Dynasty as gift in the 11th century. The Najeon items of Goryeo were often traded from the early 12th century when foreign trade was active, meaning that it was a proud specialty of Korea.

One of the most prominent characteristics of Najeonchilgi in the Goryeo Dynasty was their Ggeuneumgil patterns. The original patterns before the refinement are called Wonpae, and there are more than 3,000 of them. They should not be too thin if they are to have unique lucidness. Jeolmun is a fragment cut from the original patterns. Each Jeolmun is part of the patterns. Several fragments of the



은 하나하나가 문양을 구성하는 일부일 뿐이다. 같은 무늬 혹은 다른 무늬 몇 개가 짝을 이뤄 비로소 어떤 종류의 무늬가 형성되고 그것이 규칙적으로 배치되거나 연속적으로 전개되면서 하나의 장식으로 완성된다.

고려시대 나전 무늬의 특징은 국당초(菊唐草), 모란당초(牡丹唐草), 국화, 귀갑 등의 강한 규칙성과 반복에 있다. 그리고 자연을 모티브로 삼은 그 속에서 울동감을 느낄 수 있는 점이 매력이다. 고려시대에는 나전 자체를 귀족들이 많이 즐겼으며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해 화려한 표현이 잦아 감상하는 재미가 큰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는 유교 사상을 근간으로 해 고려시대의 것보다 차분하고 더욱 수수한 이미지가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 만들어진 나전칠기는 반복되거나 딱 짜이기보다는 어딘지 어색하고 대칭이 흐트러지며 공간을 많이 남기게 되는데, 말하자면 소수의 귀족 취향에서 점차 민중적인 취향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쌍봉(雙鳳), 쌍용(雙龍), 사군자 무늬를 비롯해 십장생을 주제로 하는 서정적인 문양이 두드러졌다.

개화기 이후에 새로운 형태로 그 맥을 이어나가던 나전칠기는 1970~80년대에 큰 호황을 맞았다. 나전을 다루는 장인, 칠을 하는 장인, 이전에 목기를 만드는 장인 적어도 셋의 정성이 낳은 나전칠기는 고귀함, 부의 상징으로 연결됐다. 하지만 공장에서 수많은 복제본을 제작하며 대중들의 수요와 흥미를 잃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지금 장인이거나 인간문화재들만이 자개를 다루고 나전칠기를 제작하고 있다. 우리 선조들이 좋은 것이라 물려줬고 그것을 계속 이어받으며 생성된 것이 '전통'이라고, 나은크라프트의 장현자 대표는 말한다.

이토록 우아하고 정성스러운 예술품을 내 공간에서 마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일지 새삼 궁금해졌다. S

에디터 나보미 사진 이은숙 참고서적 <나전공예>(권상오, 대원사) 도움 받은 곳 나은크라프트(02-779-2259)

same or different patterns are paired to create a certain pattern, and are arranged regularly or continuously to complete an ornament.

The Najeon patterns in the Goryeo Dynasty are characterized by strong regularity and repetition, to create Gukdangcho, Moran-dangcho, Gukhwa, or Guigap. The rhythm in the motif of nature is truly attractive. Najeon was popular among the nobles in the Goryeo Dynasty, and the ornaments were glamorous, based on Buddhist culture.

The Joseon Dynasty created quieter and humbler images based on Confucian culture. Najeonchilgi from the Joseon Dynasty was somewhat awkward and asymmetrical, with much negative space, without any repetition or regularity. It reflected the civil taste rather than the noble taste. More lyrical patterns, such as a pair of Phoenix, a pair of Dragons, the Four Gracious Plants, and the Ten Symbols of Longevity, were more widely found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

A new style of Najeonchilgi emerged after the opening of Korean borders, and flourished in the 1970s-80s. Created by the devotion of Najeon masters, lacquer masters, and woodenware masters, Najeonchilgi symbolized value and wealth. However, public demand for and interest in them decreased when many factories began manufacturing replicas. As a result, today, only masters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at? handle mother-of-pearl to create Najeonchilgi.

President Hyun Ja Jang of Naeun Craft says tradition stands for the good things handed down by our ancestors to us. I wanted to find out how impressive it would be to feature such elegant and earnest artworks in my space.



1

복을 부르는 습관

풍수지리에 입각해 터전을 일구듯 집 안에도 복을 부르는 방법이 있다.
 볼 때마다 좋은 기운을 북돋워주는 소품들을 소개한다.



2



3



4



5



6



8



9



10



11



12

1 조명은 집을 밝혀 복을 부른다고 한다. 달항아리 모양의 조명은 종이나무. 2 나뭇 기운을 쫓는 의미의 닭에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꽃이 그려진 합은 우일요. 3 전통 오방색 중 황, 적색을 표현한 오색나전원영 합은 박만순 작품으로 KCDF갤러리숍. 4 꽃 그림을 수놓은 면 행주는 행복한 바느질. 5 숲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딤 포레스트' 향을 스톤 소재 화병에 담은 디퓨저는 에스테라. 6 복과 부를 염원하는 부엉이 모양의 초는 베이지컬리.

'배산임수'에 입각해 집터를 고르던 선조들의 지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최고의 집을 고르는 기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집 안에도 그 지혜를 끌어들이, 작은 소품 하나도 동물의 캐릭터나 색을 다양하게 표현하여 의미를 두곤 했다.

다복을 상징하는 화조도,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모란화를 소품이나 벽화에 활용하고, 노란색이나 금 소재는 돈을 부른다는 의미로 손이 닿는 곳에 두었다. 동물 모양 하나도 허투루 고르는 법이 없었다. 잉어 그림으로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 나비 문양은 옷장이나 서랍에 만들어 썼다.

작은 것 하나에도 의미를 두고 이를 보고 쓸 때마다 모든 일이 잘 되길 기도하다 보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우리도 일상의 행복을 바라며 복을 부르는 소품을 하나씩 집에 들여보면 어떨까. S

에디터 나보미 사진 문성진 스타일리스트 최서윤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가영 도움 주신 곳 공평아트숍(02-3210-0071), 로담(02-722-1256), 베이지컬리(02-6406-8050), 에스테라(02-722-2007), 우일요(02-763-2562), 자연공감도(02-762-5431), 정소영의 식기장(02-541-6480), 종이나무(02-766-3397), 토요(02-722-1260), 행복한 바느질(02-730-6928), KCDF갤러리숍(02-733-9041)



7

7 북의 선을 실려 매화 그림을 그려낸 접시는 김순식 작품으로 공평아트숍. 8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집을 지켜준다는 의미의 잉어를 단 청화백자 풍경은 토요. 9 인생의 부귀영화와 가정의 화목을 강조하는 나비 문양이 그려진 굽접시는 정소영의 식기장. 10 천연 소재에 조각 염색으로 재미를 준 러너는 한병우 작품으로 로담. 11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모란이 그려진 주병은 신이철 작품으로 KCDF갤러리숍. 12 나뭇가지를 단순화한 디자인의 화병은 김명례 작품으로 자연공감도.



보라색에 취하다

올봄 유행의 정점에 있는 색이 바로 라벤더 색이다.
여심을 흔드는 매력의 소품들을 모아보았다.



1 자수정과 편진주, 고양이눈 보석을 매치한 독특한 브로치는 로담. 2 봉황 모티브를 수놓은 화려한 노리개는 바이단. 3 손잡이에 보라색 톨립이 장식된 비녀는 조은희 작품으로 KCDF갤러리숍. 4 새가 앉은 나무를 실로 겹겹이 감아 표현한 브로치는 뽀스토리. 5 자수정 조각을 이어 만든 팔찌는 아신. 6 <정조행차도>를 그려낸 사선 줄무늬 넥타이는 갤러리 모색.

올봄에 가장 유행하는 색이 바로 라벤더 색이라고 한다. 연보라 색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 이 색은 언제라도 소녀의 감성을 추억 하게 하고 향긋한 내음을 퍼뜨릴 것 같은 낭만적인 색이다. 이 낭 만적인 색은 어리고 여린 색인 동시에 강렬하고 농후한 매력도 있다.

보라색은 예부터 황제의 색이었고 귀족들의 의복, 장신구에 크게 선호하는 많이 쓰이는 색깔이기도 했다. 명주 양단이 보라색으로 염색되면 고상한 느낌을 자아내고, 자수정 자개 등의 장신구로 우아한 느낌을 연출하기에 용이했다.

흑백의 지루한 옷차림에서 벗어나 봄을 만끽하는 데 라벤더 색만 큼 적합한 색은 흔하지 않다. 노란색 주황색 등의 다른 색보다는 차분하게 밝은 느낌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정한 라벤더 색의 원피스에 자수정 브로치나 팔찌를 곁들이거나 가방 안의 작은 소 지품을 바꿔 새로운 계절에 대한 반가움을 표현해보자. S

에디터 나보미 사진 문성진 스타일리스트 최서윤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기영 도움 주신 곳 가 원공방(02-2278-0250), 갤러리 모색(070-7758-2678), 공평아트숍(02-3210-0071), 로담(02-722-1256), 바이단(02-725-0825), 뽀스토리(02-989-9355), 스토리(02-735-7101), 아신(02-734-4900), 진주셀(02-2253-7585), KCDF갤러리숍(02-733-9041)



7 나비 조각이 달린 손가방은 스토리, 잣나무 함지박 불과 명주 보자기는 김용희 작품과 이원미 작품으로 KCDF갤러리숍, 나비 브로치는 아신, 비취 비녀는 가원공방. 8 금색 꽃 모티브 아래 자수정 불이 달린 귀고리는 제갈원 작품으로 공평아트숍. 9 꽃이 퍼져 나가는 모티브의 자개 핀을 장식한 손거울은 진주셀. 10 비취 머리꽃이는 서울 무형문화재 제37호 옥장 엄익평 작품으로 가원공방. 11 꽃 그림이 그려진 휴대용 향수 케이스는 로담. 12 호박과 자수정으로 만든 긴 목걸이는 엄익평 작품으로 가원공방.



모든 여성의 피부에 윤과 결을 허하라

한국 여성의 피부는 외국 여성들이 가장 닳고 싶어하는 것 중 하나다. 타고난 듯 윤기가 흐르면서 매끈하고 보드라운 피부를 지닌 한국 여성들의 피부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아름답기 때문. 이렇듯 피부가 아름다운 한국 여성들의 피부 비법은 바로 윤조에센스와 미안피니셔다.

젊고 아름다운 외모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 여성들은 매일 공들여 피부를 가꾼다. 그중에서도 한국 여성들은 빛이 나면서도 촉촉하고 매끈한 피부를 가꾸기 위해 매일 수십여 개의 화장품을 이용해 관리한다. 이처럼 자신을 가꾸는 데 게으르지 않은 한국 여성들 사이에 요즘 유행하는 것은 바로 촉촉한 윤기와 매끄러운 피부결이다. 피부결이 좋다는 것은 육안으로 봤을 때 매끈하게 보이거나 만졌을 때 촉감이 보드라운 느낌을 말한다. 반대로 피부결이 좋지 않은 경우는 각질이 생기거나 피부 상태가 건조하고 트러블이 일어나 피부가 울퉁불퉁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피부 지질 사이가 고르지 않고 피부세포가 촘촘하게 자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즉 매끈하고 윤기 나는 피부는 각질층에 수분이 충분히 채워져야 할 뿐만 아니라, 피부 메마름의 5가지 요소인 생기, 탄력, 투명, 자생력, 영양이 균형을 맞춰 피부 속부터 건강하게 윤기가 우러나와야 가능하다.

윤조에센스는 세안 후 가장 먼저 피부에 발라 메마르기 쉬운 피부를 촉촉하게 진정시키고 윤택하게 만들어주어 다음 단계의 제품 흡수를 빠르게 돕는다.

윤조에센스는 1997년 처음 출시된 이래 세안 후 첫 단계에 발라 다음 단계 제품의 효과를 촉진시켜주는 부스팅 에센스로 큰 인기를 얻었고, 설화수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아이템이 되었다. 특히 설화수만의 고유 처방인 '자음단' 성분에 의해 피부의 음 부족 현상 즉, 피부가 메마르는 증상을 막아 여성의 피부에 음을 더해 주고, 탄력 저하, 수분 부족, 주름 생성 등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피부 노화현상을 가장 먼저 개선해 준다. 최근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 외국 여성들에게도 윤기 나는 피부를 만들기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 윤조에센스가 각광받고 있다.

피부를 건강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아름다운 결을 선사하는 윤조에센스는 피부 노화를 막아 젊음을 유지해 준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37호 옥장 억인평의 옥반침과 옥잔 모두 기원공방.

Women everywhere devote themselves to skincare for a younger, more pleasing appearance. Korean women, in particular, use different kinds of cosmetic items for radiantly hydrated, smooth skin. What are most popular among Korean women who are never idle about skincare are their hydrated skin radiance and smooth skin texture. Beautiful skin texture refers to the texture that looks smooth or feels smooth to the touch. Bad skin texture refers to the unevenness caused by dead skin cells, dryness, or skin trouble. The unevenness is caused by the uneven fillings in the lipids and the low skin cell density. In other words, smoothly radiant skin requires that the stratum corneum be filled with ample moisture and that the five components related to dryness, vitality, resilience, transparency, regeneration, and nutrition, be balanced for the health radiance.

First Care Activating Serum is applied right after cleansing to soothe and refine dryness-prone skin and to boost the penetration of other products.

Since it was first released in 1997, First Care Activating Serum has become widely popular as the boosting essence applied right after cleansing to boost the effectiveness of other products. It has been the signature item of Sulwasoo ever since. Sulwhasoo's original "Jaumdan" prevents the Yin deficiency of the skin, which refers to the dryness of skin, and replenishes the Yin energy in women's skin to quickly defy the signs of aging, such as loss of resilience, lack of moisture, and wrinkles. It has been popular among many foreign women in the U.S., China, and Singapore for radiant skin.

First Care Activating Serum is formulated as the boosting essence



미안피니셔는 아침에는 생동감 있는 피부로 만들어 화사한 인상을 유지하게 해주고, 밤에는 촉촉한 피부 보습력을 지켜줘 자연스러운 피부 보호막이 되어준다.

윤조에센스가 세안 후 첫 단계에 바르는 부스팅 에센스라면, 설화수 미안피니셔는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사용해 하루 종일 촉촉하면서도 윤기가 흐르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신개념 제품이다.

미안피니셔는 또한 겉으로 드러난 피부결만 촉촉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피부 속에 촉촉함을 지속적으로 선사해 장시간 동안 강력한 피부 보습력을 선사하고, 피부 표면에 영양막을 형성해 각질이 생기거나 들뜨지 않도록 피부 상태를 만들어 메이크업까지 잘 받도록 돕는다.

미안피니셔의 주요 성분은 녹삼효다. 녹삼효는 귀한 성분을 찾았에 우려내 물과 함께 복용했던 우리 선조들의 전통 지혜에서 착안한 것으로, 녹차와 인삼의 피부 보호효과를 바탕으로 완성된다. 특히 녹삼효는 여성들에게 맑은 안색과 촉촉한 수분, 자연스러운 윤기 개선 기능을 전한다. 미안피니셔는 쫄쫄한 질감의 텍스처가 바르는 순간 산뜻한 느낌을 선사하고, 바르고 잔 다음 날엔 한층 촉촉하고 부드러워진 피부결과 빛을 머금은 안색을 느낄 수 있다. 게다가 하이라이터처럼 이마나 미간, 뺨 등에 덧발라주면 고급스러운 윤기가 자연스럽게 살아나 훨씬 생기있는 인상을 만들어준다.

설화수의 윤조에센스와 미안피니셔는 피부 유수분 밸런스 유지는 물론 탁월한 턴오버 기능, 풍부한 보습력을 통해 두 제품을 함께 사용했을 때 어리고 아름다운 동안 피부로 유지할 수 있는 시너지를 누릴 수 있다. 지루한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으면서 피부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당신이라면, 세안 후 첫 단계에서 사용하는 윤조에센스와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는 미안피니셔로 하루 종일 윤과 결이 반짝이는 피부를 만들어보자. S

에디터 김미경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도움 주신 곳 가원공방(02-2278-0250)

applied right after cleansing, whereas Sulwhasoo Luminature Essential Finisher is the new product that leaves the skin hydrated and radiant all day when applied in the last step of skincare. Luminature Essential Finisher not only hydrates the skin texture on the surface but also constantly hydrates the skin for powerful moisturization that goes a long way. It forms a nourishing barrier on the skin's surface to create a skin condition free of dead skin cells or caking.

The major ingredient of Luminature Essential Finisher is Green Ginseng Complex(Noksamhyo). Green Ginseng Complex, inspired by the traditional wisdom of the Korean ancestors who brewed precious herbs to be drunk as tea, is completed with the skin protection effect of green tea and ginseng. Green Ginseng Complex is formulated for a bright skin complexion, ample moisture, and natural radiance. Luminature Essential Finisher has a rich texture that refreshes upon application, and you will find the skin much more hydrated and smoother in texture and radiant in complexion in the morning. Apply on your forehead and cheeks as a highlighter to add luxurious radiance for a more vivid impression.

Sulwhasoo's First Care Activating Serum and Luminature Essential Finisher maintain the oil-moisture balance, promote skin turnover, and replenish the skin's moisture. When used together, they create the synergy that will leave your skin looking younger and more beautiful. If you find skincare difficult after the long, tedious winter, create the radiance and texture you desire with First Care Activating Serum and Luminature Essential Finisher in the last and final steps of skincare.

설화수와 인연을 맺다



반도네온 연주가 고상지
하루를 채우듯, 담담하게

자신에게 쏟아지는 대중의 관심이란 깊이 있는 음악적 관심에 앞서 카이스트를 그만두고
낮선 반도네온이란 악기를 선택한 독특한 이력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그녀도 안다.
하지만 정작 그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변곡점 이후다.

1920년쯤 만들어진 그녀의 오래된 반도네온에는 우리네 자기 문양처럼 빛나는 조개껍데기 조각이 장식되어 있었다. 그것은 낡은 동화책에나 등장할 법한 고전적인 마법상자 같기도 했고 약간 체중을 털어낸 아코디언을 닮기도 했다. 반도네온(Bandoneon)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건 아르헨티나에서 탱고 연주에 자주 사용되면서부터. 꽤 흥미로운 사연까지 갖고 있다.

“독일의 한 교회에서 오르간 대용,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은 종교를 위해 만들어진 악기였어요. 그러다 선원들이 반도네온을 많이 연주하면서 자연스레 항구도시인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음악적 분위기가 전파되었죠. 태생과 달리 나중에는 사창가와 환락가에서도 연주되면서 발전했으니, 참 아이러니하죠.”

이토록 낯설기도, 신비롭기도, 심지어 연주조차 까다로운 이 악기에 시쳇말로 그녀가 꽃힌 건, 카이스트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음악생활을 시작하면서였다. 당시 카이스트에는 음악적 수준이 뛰어난 모임이 산재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선택했던 그녀도 그런 모임에서 피아노와 기타, 베이스 등을 연주하면서 몰입되어 갔다. 먼저 감정이 실린 건 탱고 음악이었고 자연스레 탱고의 메인 악기인 반도네온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 다행히 아르헨티나에 사는 이모를 통해 어렵지 않게 악기를 손에 질 수 있었다.

“아스토르 피아졸라(Astor Piazzolla)의 탱고 음악에 꽃혀서 악기 연주를 시작했어요. 당시 카이스트와 충남대 사이에 대학로 같은 변화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는 카이스트 교수님과 함께 길거리 공연을 했지요. 당시에는 ‘여인의 향기’ 한 곡의 코드만 단순히 외워서 연주했답니다. 다행히 악기가 신기해서인지, 지나가던 분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응원을 보내주셨죠. 그게 첫 거리 연주였어요.”

탱고 음악은 매우 강렬하고 선명하게 다가왔다. 무엇보다 그 특유의 그루브가 그녀를 온통 삼켜버릴 듯 유혹적으로 다가왔다. 하기가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연주를 본다면 이 고전적인 주름상자가 이리도 날렵하고 경쾌하며, 때론 매우 강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을 터. 마치 아름다운 여인이 발을 짝 뺀어 탱고를 추듯 유려하게 주름이 펴지고 줄어든다.

의도적인 일탈이 우연한 인연을 동반하듯, 그녀가 삶의 방향을 틀자 자연스럽게 새로운 만남이 다가왔다. 우선 연주생활 초기에 생각지 못한 인연이 찾아왔다. 세계적인 반도네온 연주자인 고마츠 료타(Komatsu Ryota)에게 사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였다. 거리와 레스토랑에서 공연하는 걸 본 고마츠 료타의 팬이 ‘한국에서 반도네온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응원해 달라’는 메일을 보내면서 연이 닿았다. 물론 유학할 형편이 못 되어 3개월에 한 번씩 일본으로 건너가 3주씩 머물면서 3년간 배운 힘든 배움이었지만, 이후에는 아르헨티나로 훌쩍 날아가, 본토에서 반도네온을 배우고 연주했다.

“솔직히 엔고에 못 이기다, 이모가 있어서 집세를 아낄 수 있는 곳으로 터전을 옮긴 거였어요. (웃음) 일본 친구들이 에밀리오 발카르세 탱고 오케스트라 학교(Orquesta Escuela de Tango Emilio Balcarce)를 많이 추천해서 한번 오디션을 봐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그곳은 학사를 따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실기 위주로 진행되는 곳이에요. 20명 남짓 오디션을 통해 학생을 뽑는데, 1학년은 시의 지원을 받아서 공짜로 음악교육을 시켜주고 2학년은 밀롱가(탱고를 추는 사교클럽) 등을 돌면서 공연을 하러 다니게도 한답니다. 그러한 공연 시간이 제겐 너무, 너무 좋았어요.”

물론 행복했던 시간의 총량을 잴다면 단연 일본에서 생활하던 시기다. 아르헨티나는 음악적으로 환상적인 환경이지만 삶의 손발은 영 맞지 않았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종종 어이없는 일들이 곧잘 아침인사처럼 아주 태연하게 벌어졌다. 가령 12시 공연이 당연하다는 듯 새벽 2시에 시작되었고, 버스 다섯 대가 한꺼번에 지나가서 버스를 40분 남짓 기다려야 했으며, 정전이 사나흘간 이어져 사람들이 항거의 의미로 도로에 불을 지피기도 했





다. 물론 지금은 이미 어렴풋한 과거의 추억이 되었지만, 지금도 아르헨티나의 기억은 불현듯 그녀의 뺨을 세차게 때리기도 한다. 가령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의 훌륭한 연주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보게 되는 순간처럼. 사실 그녀는 2년 전부터 시작된 '시련의 시기'를 터벅터벅 걸어가는 중이다. 재능과 노력이 버무러지는 음악의 특성상, 음악적 숙성과 발전은 사람마다 시간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도 아르헨티나에서도 발전이 빨라 온통 희망에 차 있던 그녀는, 요 몇 년 사이 음악적 발전이 더디다며 속상해했다.

“반도네오이라는 악기가 희소해서 생각보다 초기에 일이 잘 풀렸어요.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실제로 연습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죠. 혼자서 매니저 역할까지 겸하면서 편곡을 하다가 틈이 나면 연습을 하는 일상이 이어졌답니다. 아무래도 연습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녀에게 연주란, 무한히 행복한 작업만은 아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정말 힘들어죽겠다'며 하소연을 쏟아내고 싶은 심정이다. 연주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야 가능한데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였다.

이쯤에서 그녀가 시련의 시기를 무던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이 궁금해졌다. 그녀는 잠시 생각을 고르더니 익숙한 이름들을 꺼내 들었다. 1순위는 역시나 고마츠 료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탱고란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탓에 음악적 소통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많지 않은 듯했다. 탱고 영역을 넘어선다면 그녀가 스스로 '은혜를 받았다'며 감사를 표현하는 김동률과 정재형, 두 오빠들이다.

“특히 선생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주자인데도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이 존경스러우면서 동시에 그냥 좋아요. 지금도 선생님이 '내 연주회 좀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서 손을 내미시면 '선생님, 제가 아직 쓸 만하다는 말씀이시죠?'와 같이 너스레를 떨면서 함께한다고 하죠. 갑자기 힘이 불쑥 난다고나 할까요.”

연주가, 그것도 반도네오 연주가로서의 길은 쉽지 않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종종 찾아오지만, 그러한 순간마다 머릿속은 외려 단순하고 간결해진다. 지금 준비하는 앨범을 최선을 다해 녹음하고 대중의 반응을 보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니 즐기면서 열심히 하겠지만 이것으로 꼭 성공한다고 스스로를 억지 세뇌시키지도 않는다. 그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뮤지션에 대한 동경, 그 자리에 자신이 서서 음악을 한다는 사실에 집중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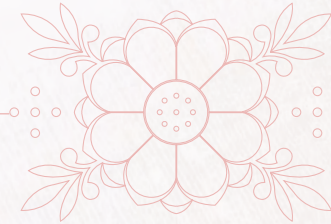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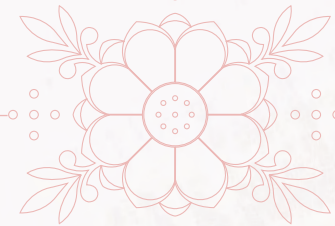
행여 대중의 반응이 사라져 활동이 어려워진대도 걱정할 것은 없다. 머릿속 선택지 맨 하단에는 레스토랑 아르 바이트라도 하면서 연주생활을 하면 된다,고 적혀 있으니까. 아직 젊은 그녀에게 삶은 그다지 두렵지 않은 오늘이자, 이어진 내일일 뿐이다.

그녀와 이야기를 풀어갈수록 나는 그녀에게 음악이란 일종의 하루를 채워가는 방식, 그러니까 매일같이 한끼 식사를 준비하는 마음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끼니가 때론 화려할 수도, 때론 소박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음악을 떨쳐내지 않을 본심만은 확실하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인터뷰의 말미를, 그녀가 삶의 바이블처럼 여기는 이노우에 다케이코 작가의 말로 대신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고등학교 때, 나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건 괴롭다고, 적당히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 나는 그 말에 반대했다. 지금은 그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직업이 적당히 좋아하는 일이었다면 아마도 지금쯤 내팽개쳤겠지. 좋아하는 일은 나 자신과 같다. 나 자신을 내팽개칠 수는 없다.'S

에디터 박지현(프린서) 사진 박재형 헤어&메이크업 메이엔(02-3443-9926) 스타일리스트 안수명 도움 주신 곳 볼빅스엠무어(02-3442-3012), s썸레지아·제시뉴욕(02-3442-0220), 캄빈클라인 플래티늄(02-3443-1703), 할라삼·프란시스 케이(02-508-6033)

수려한 산수절경(山水絶景)에
싸여 꽃을 두고 시와 노래를
즐겼던 우리 선조들은 봄은 곧
꽃(花)이라 했다. 목련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며 봄이 왔음을
느꼈고, 냇가에 자리한 개나리의
꽃망울에 행복해하고 웃었다.
과거에 장원급제한 선비의
머리에 꽂는 어사화(御賜花)가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것처럼,
아름다움, 화려함, 번영,
영화로움의 긍정적 의미를 지닌
꽃은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花樣年華)'을
표현한다.





봄꽃에 취하다



삼진날, 봄에 물들고 꽃에 취하다

산천에 봄이 찾아오면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남녀노소 봄날의 자연에 흠뻑 취해 화려한 꽃 노래를 부르는 모습들. 온 산야가 꽃 노래로 들썩이던 봄의 축제, 그것이 곧 삼진날이다.

‘강남 갔던 제비’라고 할 때의 강은 중국의 양쯔강이다. <홍보가>의 ‘제비노정기’에는 강남에서 조선에 이르는 제비의 기나긴 여정이 나온다. ‘축융봉 넘어 동정호 지나, 요동 칠백 리 날아 압록강 건너, 삼각산 남태령 넘어 전라 경상 어드메로...’ 가을걷이 끝난 빈 들판을 가로질러 떠났던 제비는 그렇게 박씨처럼 봄을 물고 되돌아온다. 제비가 떠나는 날은 중앙절(重陽節 음력 9월 9일)이고, 돌아오는 날은 삼진날(음력 3월 3일)이다. 추녀에 제비 날아들고 봄꽃에 벌 나비 모여드는데 사람들이라고 가만히 있었을까. 이날 옛사람들은 봄꽃 흐드러진 산과 계곡으로 나가 꽃지집을 부치고 가무를 즐기며 새봄을 흠뻑 즐겼다. 남녀가 모두 아지랑이처럼 부풀고 노소가 함께 봄 흠뻑처럼 들뜨는 날. 온 산야가 꽃 노래로 들썩이던 축제의 날이 바로 삼진날이었다.

삼진날의 풍경들

삼진날 계집아이들은 봄 풀을 뜯어 인형의 머리채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 몸통을 만든 다음 울긋불긋한 형겅으로 저고리와 치마를 만들어 입힌다. 그리고는 요, 이불, 베개, 병풍을 두루 갖춰놓고 인형놀이를 하는데 이를 ‘각시놀음’이라 한다. 사내아이들은 물오른 버드나무나 미루나무 껍질로 호드기(버들피리)를 만들어 분다. 냇가는 머리 감는 부녀자들로 아침부터 북새통이었는데, 이날 머리를 감으면 1년 내내 머리채가 소담하고 아름답다는 속설이 있었던 까닭이다. 노부모를 모시는 자식들은 새벽녘에 고살로 나와 나비 점을 쳤다. 이날 흰나비를 보면 그 해에 상복을 입게 되고 호랑나비나 노랑나비를 보면 운수가 좋다고 여겼다. 삼진날 마을에서 경로잔치를 벌이는 풍습도 있었는데, <동국여지승람>엔 이런 설명이 나온다. ‘봄철 좋은 날에 노인들을 명승지로 모셔 위로하니 이를 ‘청춘경로회(青春敬老會)’

라 한다. 비록 천한 신분일지라도 일흔 살 이상이면 모두 잔치에 참여하도록 했다.’

전국의 활터에선 한량들끼리 편을 갈라 ‘활쏘기 대회(弓術會)’를 열었고, 팔도의 유생들은 상서로운 봄날을 맞아 경건하게 시제(時祭)를 지냈다. <열양세시기>에 따르면 삼진날의 시제는 중국과 다른 조선 사대부들만의 특징이었다고 한다.

‘기제사는 중히 여겨도 시제는 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오랑캐의 터러운 습관이다. 조선 중엽에 이르러 사대부 중에서도 예절을 따지는 이들이 많아지며 비로소 시제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체로 가난하여 네 계절 모두 지내는 이는 드물고, 대개 봄의 삼진날과 가을의 중앙절에만 지내는 경우가 많다.’

삼진날은 이렇듯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또는 양반 상놈 구분 없이 다들 설레고 분주한 날이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날을 춘삼월의 가일(佳日)로 만들어준 중요한 특징이 있었으니, 삼진날 풍습의 정수로 꼽히며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화전놀이’가 바로 그것이다.

산으로 들로 꽃구경 가자스라

화전놀이는 경치 좋은 산이나 계곡으로 나가 진달래 화전을 부쳐 먹고 꽃구경을 하며 노는 풍습으로 ‘화류놀이’라고도 부른다. 파릇한 봄 풀을 밟으며 산책한다는 뜻에서 ‘답청(踏靑)’이라고도 했고, 다른 말로는 ‘꽃달임’이라고도 불렀다. 음력 3월이면 삼남(三南)은 물론이고 한강 이북에도 봄기운이 완연했을 터, <동국세시기>와 <열양세시기>엔 서울 지역의 화전놀이 명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실려 있다.

‘산언덕이나 물굽이에 나가 노는 것을 화류(花柳 꽃놀이)라 한다. 삼진날 답청하던 풍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필운대의 살구꽃, 북둔(성북동

3월 삼진날이나 청명절 등 봄에 날씨가 좋은 날을 택해 부녀자들이 산이나 승지를 찾아가서 하루를 즐기는 놀이를 화전놀이라 하고, 이때 지은 가사를 화전가라 한다. 화전가는 여인들이 함께 모여 짓기도 하지만, 주로 미리 지어오거나 화전놀이가 끝난 뒤 집에 돌아와 그 날 하루를 돌아키며 글을 짓는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담청절은 삼진날을 달리 부르는 말이다. 봄을 맞아 푸른 들만에 나가 꽃놀이를 하고 새 풀을 밟으며 봄을 즐긴다는 의미로 담백초(踏百草)라고도 한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서울 풍속에 산언덕, 물굽이에 나가 노는 것을 화류라 하고, 이것은 곧 상사(上巳: 삼진날)의 담청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북쪽)의 복사꽃, 흥인문 밖의 버들이 제일 좋은 곳으로 손꼽히고, 여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다.' <동국세시기>

'서울의 꽃과 버들은 3월에 성하다. 남산의 잠두와 북악산의 필운대와 세심대는 유람객의 집합소였다. 따라서 사람들이 구름 같이 모이고 안개처럼 피어 한 달 동안 줄어들지 않았다.' <열양세시기>

화전놀이는 일찍이 신라시대부터 시작된 오랜 풍습이었다. <교남지>에 보면 경주의 '화절현(花折峴)'이라는 고개가 나오는데, 신라 궁인(宮人)들이 봄놀이를 하며 꽃을 꺾은 데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한다. <삼국유사>와 <고려사>에도 봄날의 꽃놀이 풍습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김유신의 만팔 재매부인을 청연 위에 있는 골짜기에 묻고 재매곡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매년 봄에 집안 부녀자들이 계곡 남쪽의 물가에 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 시기에 수많은 꽃들이 만발하고 송화(松花)가 골짜기에 가득하였다.' <삼국유사>

'고려 한양부는 북쪽으론 화산, 남쪽으론 한강에 접하였다. 이 고을 사람들은 봄이 되면 남녀가 놀기 좋은 시절을 서로 즐기면서 노래를 불렀다.' <고려사>

이렇듯 꽃과 풍류가 어우러진 날에 '시절 음식'이 빠질 수 없다. 삼진날의 대표 음식은 다름 아닌 화전(花煎). 시인 김상옥이 '어마씨 그리운 숨씨에 향기로운 꽃지짐'이라 노래했던 바로 그 음식이다.

꽃지짐 향기로운 봄날의 소풍

화전놀이 장소에 도착한 아낙들은 우선 온 산에 만발한 진달래 꽃잎을 한 움큼씩 따 온다. 그런 다음 번철에 기름을 두르고 찹쌀 반죽에 꽃잎을 얹어 화전을 만든다. 예쁜 모양새와 고소한 냄새, 지글거리는 소리와 향긋한 식감. 정녕 오감(五感)으로 봄을 들이치게 하는 이 멋들어진 꽃지짐을 <동국세시기>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참꽃(진달래)을 따다가 찹쌀가루에 반죽하여 둥근 떡을 만들고 그것을 기름에 지진 것을 화전이라 한다. 또 녹두가루를 반죽하여 익힌 것을 가늘게 썰어 오미자 국에 띄워 꿀을 타고 잣을 곁들인 것을 화면(花麵)이라 한다. 더러 참꽃을 녹두가루에 반죽하여 만들기도 한다. 이것들은 아울러 시절 음식으로 제사에 쓴다.'

엄밀하게 말하면 화전놀이는 여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조선 중기의 풍류가객 임제가 남긴 '작은 개울가에 돌 고아 솔뚜껑 걸고 / 기름 두르고 쌀가루 얹어 참꽃을 지졌네 / 젓가락 집어 맛을 보니 향기가



입에 가득 / 한 해의 봄빛이 뱃속에 전해지네'라는 글월에서 보듯, 남정네들 또한 화전놀이를 통해 봄날의 흥취를 즐겼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꼭 이날이 아니어도 언제나 훌쩍 나설 수 있었던 사내들과 달리 여인들은 1년에 오직 하루, 삼진날에만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봄나들이가 가능했다. 기다림이 간절했던 만큼 흥취 또한 남달랐을 것이고, 해거름의 아쉬움 또한 그만큼 컸을 터. 서로 주거나 받거나 하며 집단 창작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불리던 <화전가(花煎歌)>에는 규방과 부엌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를 털고 일어서던 옛 여인들의 아쉬움이 오롯이 담겨 있다.

'정신없이 놀다보니 해는 어이 잘 가는고 / (...) 잘 있거라 잘 있거라 산천초목 잘 있거라 / 꽃은 꺾어 손에 들고 있는 따서 입에 물고 / 내려오며 놀아보세(...) / 그러저럭 내려오니 해는 지고 달이 솟네 / (...) 명년 이때 다시 만나 즐거웁게 놀아보세.' S

에디터 김미경 글 박경수



꽃길 따라 봄날 산책

봄은 곧 꽃이요, 꽃은 곧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전령이다. 꽃망울이 터질 무렵 봄은 화려한 자태를 드러내고, 나비는 만개한 꽃을 찾아든다. 세상이 봄을 맞았으니, 집에도 봄이 찾아왔다. 이웃집 담장에, 수줍은 여인네의 방에, 화전을 부치느라 부산한 부엌에 골목까지. 꽃을 따라 산책을 떠난다.

에디터 김미경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아영 촬영 장소 남산한옥마을(02-2264-4412) 도음 주신곳 규방도감(02-732-6609), 동명상련(02-391-0077), 바이탄(02-725-0825), 반김(02-730-6958), 진주셀(02-2253-7585), 한복린(02-517-6830)



꽃피는 봄이 오면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걷다보니, 푸른 산 하얀 바위 사이사이에 꽃이로다. 화가 불러 경치 그리게 한다면, 저 숲 속의 새소리는 어찌 하려나.'
울긋불긋 봄꽃으로 물든 금수강산의 절경을 바라보며 시인 김병연은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남겼다. 겨울 기운이 채 가지지 않은 초봄, 목련 개나리 매화 벚꽃이 동네 어귀마다 꽃을 피우면 달력을 보지 않아도 봄이 왔음을 알았고, 여인들은 꽃으로 물든 꽃신을 신기 시작했다.

단아한 꽃이 수놓아진 꽃신은 한복린.



3월의 화류놀이

춘삼월 호시절(春三月 好時節)이라는 말이 있다. 3월에는 날씨 좋은 날 하루를 잡아 농부는 농부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유생은 유생끼리 산과 들로 꽃놀이를 간다. 이를 화류놀이라고도 하고 꽃달임이라고도 한다. 남성들의 화전놀이는 비정기적인 봄맞이 풍류의 일환이었고, 참여 범위도 지인(知人)으로 제한되는 등 여성들의 화전놀이와는 구별되었다. 화전놀이는 남성들에게는 그저 가벼운 여가 활동에 그쳤으나,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여성들에게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나들이였기에 나서기 전부터 화려한 장신구로 단장에 신경을 많이 썼다.

이담한 소반, 옷칠 소쿠리, 젓가락, 손수건은 모두 규방도감 나무점시는 양병용의 작품으로 반김, 나무점시 속에 담긴 꽃 부꾸미는 동병상련, 오른쪽 페이지 꽃으로 장식된 이담한 자개 경대는 진주셀, 꽃으로 장식된 장신구는 한복린.



여인을위한계절, 봄

3월 삼짇날엔 날씨가 좋은 날을 택해 부녀자들이 화전놀이
를 하러 산이나 벌이 들지 않는 승지로 나가 하루를 즐겼
다. 이를 가리켜 '화전놀이(花煎—)'라 불렀다. 이날 여인들
은 미리 준비해 간 음식과 꽃잎을 붙여 부친 부꾸미와 꽃
전이라 불리는 '화전(花煎)'을 만들어 먹으며, '화전가(花煎
歌)'를 지어 부르거나 규방가사로 가회를 즐기곤 했다. 이
처럼 여인들이 1년에 한 번 화전놀이를 자유롭게 즐겼다
면, 유생들은 단옷날 이몽룡이 성춘향에게 반했듯 어여쁜
여인을 이날 봐두었다가 혼담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소쿠리에 담긴 꽃 부꾸미는 동병상련. 오른쪽 페이지 꽃이 수놓아진 저
고리와 죽두리는 바이탄.





꽃구경 언제가 좋을까

봄이 되면 소년들은 눈이 녹은 땅 위에서 팽이를 치거나 제기
 기를 차며 놀았고, 각시풀이나 진풀을 가지고 버들피리나
 풀각시를 만들며 놀았다. 봄이 오면 남녀노소 누구랄 것 없
 이 집을 벗어나 산과 들을 찾았고, 꽃나들이를 하러 산책에
 나섰다.

‘시인들의 맑은 경치 이른 봄에 있으니, 갓 짙이 뜬 노란 버
 들 아직 고르지 않네. 상림원 꽃 비단처럼 화사할 때를 기
 다린다면, 문 나서면 온통 꽃구경하는 사람으로 넘칠 테
 지.’ 당나라의 시인 양거원(楊巨源)의 시에서처럼, 봄의 절
 경을 보고자 한다면 궁궐 후원에 화사하게 꽃이 넘칠 때를
 기다리면 된다고 했듯, 우리도 꽃으로 물들 때를 기다리
 자. 그때가 곧 봄일 테니.

여인들, <화전가>를 부른다

마을 머느리들의 집단 봄나들이인 화전놀이는 여린 잎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이른 봄날에 하는 통문 돌리기로 시작된다. 시어른 허락도 받아야 하고, 음식과 물품들도 미리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으로 치면 부녀회장쯤 되는 인물이 장소를 적은 '화전 통문'을 일찌감치 가가호호에 돌린다. 이 과정은 대개 중년 여성들이 주도하며, 머느리들이 자유롭게 즐기라는 뜻에서 시어머니들은 따라가지 않는다.

통문을 받은 부녀자들은 설렘과 흥분 속에서 삼진날을 손꼽았다. 1년 내내 힘겨운 시집살이에 시달리다가 모처럼 나가는 봄나들이인 까닭이다. 행동거지 하나하나마다 온갖 신경을 써야 했던 머느리들이지만 이날 하루만은 춤과 노래는 물론이고 약간의 술추렴도 흥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 후기에 널리 유행했던 <화전가(花煎歌)>엔 삼진날을 맞은 옛 여인들의 들뜬 심경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규중처자 길쌈과 방적을 일삼다가, 우리 한번 화전놀이 하여 볼까, 먼 데 동무 편지하고 근처 동무 의논하여, 화전 날을 받을 적에 삼월삼진 받아보자.'

'이렇듯이 좋은 이때가 어느 때뇨? 불한불열(不寒不熱) 삼춘(三春)이라 피꼬리 펴펴 날고, 수놓은 꽃밭에는 벌 나비 분분하다. 우리는 피꼬리 아니로되 꽃은 같이 얻었으니, 우리 비록 여자라도 이러한 태평시대 아니 놀고 무엇하리.'

이렇게 적게는 서른 명에서 많게는 오륙십 명이 한데 어울려 '동해(東海)에 고운 명주 잔줄 지어 누벼 입고, 추양(秋陽)에 바랜 베를 연반물 들여 입고.' <화전가(강릉 지방)>

10리 안쪽의 산이나 계곡으로 꽃놀이를 떠난다. 산천을 두루 구경하며 봄날의 따스함과 답청(踏靑)의 해방감을 만끽하고 난 뒤, 목적지에 다다르면 큼직한 천막을 세워 놓고 꽃지짐을 부친다.

'구경은 그만하고 화전 터로 내려와서, 번철이야 솔이야 시냇가에 걸어놓고, 맑은 기름 흰 가루라 화전을 지져놓고, 화간(花間)에 재종숙질(再從叔姪) 웃으며 불렀으되, 어서 오고 어서 오소, 집에 앉아 수륙진미(水陸珍味) 보거나 하려니와, 우리 일실(一室) 동환(同歡)하기 이에서 더할소냐?'

푸짐한 음식상이 차려지고 술 두어 순배가 돌고 나면 본격적인 이야기판이 벌어진다. 신세 한탄에 서방 원망에 시댁 식구들 험담까지, 퐁퐁 감춰놓았던 가슴속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옷놀이와 꽃싸움(진달래 꽃술을 마주 걸고 당겨서 먼저 끊어지면 지는 놀이), 곱사춤 병신춤에 엉덩 글씨까지 거치면서 흥이 절정에 이르며 이윽고 화전놀이의 정수인 '화전가 대거리'가 시작된다. 앞집 형님 한 구절, 뒷집 아우님 한 구절, 다음엔 옆집 새댁 한 구절. 앞에서 인용했던 노래들 역시 그런 과정을 거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을 것이다.

중천이던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꿈결 같은 꽃놀이는 모두 끝나고 여인들은 다시 마을로 돌아간다. 올해 못다 한 얘기들은 이듬해 봄에야 다시 꺼내게 될 터. 아쉬운 발길을 돌리는 그녀들의 손엔 한 움큼씩의 진달래가 미련처럼 들려 있었을 것이다. S

에디터 김미경 글 박경수



韓

雪花秀

피부 깊이 힘이 살아나야 맑고 환한 빛이 차오릅니다 설화수 자정미백에센스

맑고 환한 피부빛은 피부 힘이 결정하기에-
자정미백에센스는 피부 깊이 힘을 키워 자외선, 적외선, 노화가 만든 열에 의한 칙칙함을 스스로 밝히는 피부로 가꿀 수 있습니다.
이제 쉽게 지치지 않는 맑고 환한 피부빛과 만나세요.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자정미백에센스

Sulwhasoo



기운생동, 황금빛이로다!

예부터 임금만이 취했다는 황색은 오방정색 중 으뜸의 색이다. 방위로는 동서남북의 중앙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주의 중심을 나타내는 고귀한 색이다. 또한 치우침이 없는 황색은 사계절을 포괄하는 포용의 색이요, 대지를 상징하는 풍요의 색이다.

〈세종실록〉의 세종 21년과 23년에는 노랑비가 내려 풍년이 들 징조라 기록되어 있다. 생명의 진한 기운이 깃든 노랑색은 대자연의 빛이요, 만물의 태동을 알리는 생동의 빛이다.

에디터 김미경 글 신현화 사진 이한구(다큐멘터리 사진가)

황금빛
여명일지
니

어드메가 천상이며, 어드메가 천하이런가. 하늘에서 내린 빛이 온 누리에 이르노니, '황금빛 안개'의 웅숭깊은 아름다움이런가. 곧 만물이 생동하는 여명이 시작되려니. 선조들은 중앙을, 땅의 중심으로 해와 가장 가까운 곳이라 여겼으며 광명을 상징하는 황색으로 표현하였다. 황색은 우주의 중심, 천하를 통치하는 천자를 상징한다.

Where is heaven and where is the world? The light of the sky reaches everywhere in the world for the profound beauty of the "golden mist." The dawn of life shall come soon. The Korean ancestors thought that the core was the center of the land closest to the Sun and expressed it with the color yellow, the symbol of hope. Yellow symbolizes the center of the universe and the almighty being governing the universe.



고즈넉한 산사에 봄이 깃들었다. 노란색 진수유, 개나리 흐드러진 풍경이 절경이다. 자연에 생기를 불어넣는 노란색은 균형과 화합, 평화와 휴식의 색채이기도 하다. 전통색명으로 순수한 황색은 순황색(純黃色), 짙은 누런 빛깔은 심황색(深黃色), 연한 황색은 담황색(淡黃色), 쌀 빛깔은 미색(米色), 밝은 황색은 명황색(明黃色)이라하였다.

Spring has come to the quiet temple. The yellow corni and forsythia create a beautiful scenery. Yellow brings vitality to nature and also the color of balance, oneness, peace, and rest. In the traditional language, Sunhwang was pure yellow, simhwang was deep yellow, damhwang was light yellow, misaek was the color of rice.



일몰이다. 노을빛으로 물든 대자연을 마주하며 잠시 숙연해진 시공은 속절없이 읊조린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끼고 아껴서 차마 꺼내지 못했던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한다. 노을에 흠뻑 취한 하늘과 서산마루와 물비늘은 금향색이어라. 전통색명으로 금향색은 검누르고 붉은 황색을 말한다.

It's sunset. The solemn boatman confronting Mother Nature covered with the color of sunset helplessly murmurs "It's beautiful, it's beautiful." He repeats what he has been saying all this time. The sky, the mountain, and the surface of the water are stained with the golden sunset. In the traditional language, geumhyang was dark and reddish yellow.





결
고
운
흙
빛
에
서
다

황색은 오행에서 토(土)에 해당하는 것으로 땅을 상징한다. 원래 황색은 '밭의 색이 누렇다'라는 말에서 색 이름이 유래되었다. 음양오행설에서 토는 목화금수(木火金水)를 격려하고 억제하여 그 역할을 조화한다. 때문에 토는 만물 소생의 근원이자 풍요의 상징이 되었다. 누군가 뜰 안, 결 고운 흙빛에 마음을 빼앗겨 발길을 멈추었다. 그윽한 햇살과 나무와 나그네. 트랙에 천, 지, 인이 모두 담겼다.

Yellow refers to soil in the Five Elements, and symbolizes the earth. Its traditional name, hwang, originated from the "yellow color of the field." In the theory of Yin, Yang, and the Five Elements, soil heightens and controls tree, fire, gold, and water for harmony. Therefore, soil has become the origin of life and the symbol of abundance. Someone stopped to appreciate the color of fine soil in the front yard? the ambient sunshine, trees, and wanderers. The yard contains heaven, the land, and the people.

봄을 부르는 노래

산에 꽃이 피고, 초록 빛으로 대지가 물이 드니 드디어 봄이로구나.
싱그러운 봄의 노래 가득한 곳에서 임을 그리워하리.

에디터 김미경 사진 이종근



봄의 노래

- 송장거(宋張渠)

岸草不知緣底緣(안초부지연저록)
山花試問爲誰紅(산화시문위수홍)
元造本來惟寂寞(원조본래유적막)
年年多事是春風(연연다사시춘풍)

강 언덕 푸른 풀은 어떤 인연으로 저리도 푸르고
산에 피는 꽃은 누구를 위해 저리도 붉은고
조물주는 원래 말 없이 조용하건만
해마다 봄바람이 봄을 만드느라 호들갑이구나

열로 인해 칙칙해진 피부를 맑고 화사하게 가꿔주는 자정
미백에센스는 피부를 맑고 환하게 하여 피부에 칙칙함을
개선하고, 생기를 부여해 맑고 깨끗한 얼굴로 만들어준다.



산에서

-이건(李健)

春山多草木(춘산다초목)
樵路細難分(초로세난분)
匹馬煙霞裡(필마연하리)
猶疑上白雲(유이상백운)

봄 산에는 풀과 나무가 많아
나무하는 길 좁아 알 수가 없구나
한 마리 말에 안개 노을 속이라
오히려 헤매며 오르니 흰 구름 속이로다



피부 속을 단단히 여며 곱고 빛나는 피부로 가꾸어주는 여민 에센스는 피부 노화를 완화하고 탄탄하게 빛나는 피부로 만들어준다. 여민에센스를 사용하면 4주 뒤엔 탱탱하고 탄력적인 피부가 만들어지고 얼굴의 빛, 결, 선이 되살아난다.



도자기 위로 깃털을 날리다, 리모주(Limoges)

눈처럼 새하얗고, 그 자체로 투명하고 아름다우며 강인함마저 엿보이는 리모주(Limoges) 도자기.
 19세기 이후 도자기는 계속해서 진화했으며, 투철한 장인 정신으로 명품을 디자인하고 명품을 만들어
 내는 일들을 쉬지 않았다. 현대적인 감각과 우아함을 동시에 지닌 화이트 골드의 열정.
 이는 리모주 도자기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다.



베르나르도사 모형 제작소에 소장된 인도 마다비가 디자인한 카리바의 석고 세공품. 2005년 디자인의 날에 만들어졌으며 도자기 장인과 건축가의 아름다운 만남을 기념하기 위한 것.



1



2

손가락으로 빙길 때 들리는 작고 맑은 소리, 견고함이 묻어나는 정교한 흰 우유 같은 도자기...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런 느낌이다. 먼 옛날 이탈리아 탐험가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 칸의 테이블에 놓인 도자기를 본 후 그것을 찾아 헤맸는데, 그것은 흡사 조개무덤에서 우연히 진주를 찾아낸 것 같은 경이로운 경험일지도 모른다.

16세기, 포르투갈의 항해사 바스코 다 가마는 동양에서 도자기의 첫 표본을 가져왔고, 그 후 도자기를 배에 실어 서양으로 옮겼다. 이 과정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었는데, 특히 루이 15세와 마담 폰파두는 도자기 유입에 가장 열성을 보였다. 제작 방식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고령토로 점토그릇을 만들어 고온에 견딜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다. 이는 마담 생 이리에 프레 리모주가 비누에 사용한 것과 같은 흰 점토였다.

1771년, 프랑스 중서부에 자리한 리모주 지방의 장관 튀르고는 다르네 수녀와 손잡고 세계 최초의 도자기 공장을 설립했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의 왕과 대통령의 식탁을 빛나게 해 주는 50개의 공장이 생겼고, 19세기 도자기의 황금 시대가 열렸다. 물론 오늘날 리모주 지방의 도자기 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명에 달하는 장인들은 여전히 그때의 귀중한 노하우를 간직한 채,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큰 대접과 꽃병 또는 커피잔, 컵과 접시는 혼합액(고령토 50%, 석영 25%, 장식 25%)을 틀에 붓고, 평평한 그릇은 반죽을 약간 질게하여 압력으로 분말을 주입시키는 제작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자기는 유약을 바르지 않고 980°C 온도로 24시간 초벌 굽기를 한다. 다공질 조직으로 변환된 자기는 1400°C에서 재벌 굽기를 하기 전에 유약을 바르고, 연금술에 의해 자

1 손으로 빙길 때 나는 맑고 고운 소리, 티끌 없는 순수한 흰 우유탕갈을 지닌 리모주 도자기. 2 은행 접시(필립스 실비 꼬끼), 3 장-루이 코케의 블루 스톤, 4 아더 랭보의 초상화 (장 클로드 카스텔 바작, 데슬리에서).



3



4



기는 유리화한다. 적색과 흑색의 지대를 넘나들며 화이트의 기적이 만들어진다. 이제 장식을 하고, 세번째 굽기를 마치면 착색을 가한다. 그물 무늬, 꽃 모양의 모티브를 살린 풍속화 등을 창조한 도자기 거장일지라도 자연에 있는 유대의 역청(일종의 천연 아스팔트)을 가지고 예술품을 마구 만들어내는 일은 거의 없다. 오히려 금, 백금, 에탕프 지역의 모래, 마노 원석(윤을 내기 위한) 혹은 적설광(연마하기 위한) 등의 재료를 가공해 솜씨를 뽐낸다.

놀라운 연금술은 초대작가와 디자이너에게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켜 새로운 모양과 장식으로 세기의 걸작품을 탄생시킨다. 베르나르도사의 레이몬드 르웨이(Raymond Loewy)의 세트, 코케사 마크 헬드(Marc Held)의 세트, 레이노사 호제 탈롱(Roger Tallon)의 세트는 그야말로 현대자기만이 보여주는 모던함의 극치를 선사한다. (반 돈젠(Van Do), 뤼르사(Lurcat), 달리(Dali), 뷔페(Bufferet), 콕토(Cocteau), 텅겔리(Tinguely) 등의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이 오늘날 수집가들에 의해 평가받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널리 유포되고 있는 사실을 모를 것이다. 도자기는 우연하게, 뜻밖의 상황에서 그 가치를 평가받기도 한다. 딸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마르크 샤갈(Marc Chagall)의 도자기 세트가 그 대표적인 예다. 현대 예술의 선대 거장으로는 인도 마다비사의 올리비에 가네르를 손꼽을 수 있다. 실비 코케, 필링스사 장 피에르 카갱과 같은 젊고 재능 있는 디자이너들이 큰 제조사의 지원 및 생산, 마케팅의 도움 없이 제품을 만들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티에리 라사니에트 같은 열정적인 수집가의 전폭적인 지원 때문이다. S

에디터 정순영 글 줄리 도렐(Julie Daurel) 사진 니콜라 미에(Nicolas Millet)



1 <유혹의 과일>(필립 디 메오, 레이노사) 2 <신사 컬렉션>(카스텔 바자, 데솔리에사) 3 <크로노>(농 상 레종사) 4 (로쉬 포플리에, 코드사), 라사니에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줄리안 오피가 그린
도시인의 강렬한 초상

‘핸드백을 들고 쇼핑에 심취한 여자,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신사, 성큼성큼 걸어가는 힙합 소년.’
이들은 모두 줄리안 오피의 작품 속 주인공이다. 거리를 걸어가는 인물들에게서 느껴지는 아름다움과 에너지를
강렬한 색채로 담아내는 줄리안 오피의 작품에는 가볍지 않은 위트와 우리의 삶이 숨겨져 있다.



1



2



3



4

우리가 흔히 서구미술이라 말할 때는 그리스로부터 시작해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 플랑드르(네덜란드, 벨기에)를 주로 거론한다. 바로 지금 언급한 국가들이 서구 미술의 대표적인 중심지였다. 그것을 중심으로 서양미술의 특성과 여러 징후들이 등장하고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들이 양산되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미술의 다양한 의견, 담론들이 줄을 이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미술의 진원지는 뉴욕으로 이주했다. 최근에는 뉴욕과 함께 베를린과 바젤, 런던 등이 미술의 중심지로 거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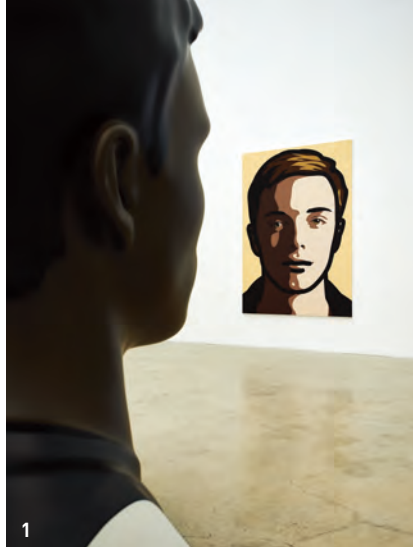
바젤은 최고의 미술시장으로서 각광받는 곳이다. 반면 영국은 오랫동안 서구미술에서는 변방에 위치해 있던 나라였다. 유럽 대륙으로부터 떨어진 이 섬나라는 대륙의 미술문화 역시 뒤늦게 수용하고 이해하였다. 그러나 컨스터블이란 낭만주의 대표적 작가의 등장과 함께 주목받으면서 이후 터너와 같은 인상주의의 전조를 여는 작가도 나왔다. 20세기 현대미술에서 최고의 작가 특히 구상미술 분야에서 영국작가들의 두드러진 활약이 눈에 띈다. 프란시스 베이컨, 루시앙 프로이트, 그리고 데이빗 호크니 등이 그들이다. 그와 함께 헨리 무어, 안소니 카로, 안소니 고펠리 등 탁월한 조각가들도 줄을 이었다.

1960년대 팝아트의 진원지가 영국이고 그 대표 작가들이 영국에서 탄생했다. 유사한 시기에 비틀즈도 태동되었다. 현존하는 최고의 작가로 거론되는 데미안 허스트도 역시 영국작가다. 오늘날 영국미술은 현대미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현재 한국에서 미술공부를 하기 위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바로 영국의 런던이다. 오늘날 영국의 런던은 미국의 뉴욕, 독일의 베를린과 함께 3대 장소가 되었다. 이곳에서 이른바 현대미술의 새로운 경향과 담론, 중요한 작가와 작품이 생산되고 있다.

현존하는 영국의 대표 작가인 줄리안 오피는 런던 출신의 작가다. 지금 그의 근작이 국제갤러리에서 전시되고 있다. 오피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 화단에 자주 소개되어 왔다. 여러 아트페어에 초대되었으며 몇 차례의 개인전도 가진 바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국미술은 무엇보다도 구상의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팝적인 화풍이 강세다. 이른바 섬나라 미술의 주된 경향이 그런 것 같다.

이웃 일본 현대미술도 역시 그러한 측면이 강하다. 만화와 유사하고 쉽고 설득력 있는 일러스트적이며 팝아트에 유사한 화풍이 일본 현대미술이다. 영국 현대미술도 그러한테 그 대표 작가가 오피다. 물론 그 유명한 호크니도 존재하지만 그의 그림은 구상화풍에 강하게 견인되어 있다. 반면 오피는 구상의 형태를 지니면서도 굵고 단순한 윤곽선 아래 구획된 형상과 그 안을 채우고 있는 명시성 높은 인공의 색채, 일상에서 취한 보편적인 소재로 이루어진 그림을 선보인다. 마치 굵은 매직펜으로 쓱쓱 그려나간 만화 이미지를 닮았고, 포스터 칼라로 선명하게 발라진 포스터나 광고 이미지를 닮았다. 따라서 오피의 그림은 기존의 화

1 거리를 걷는 혹은 잠시 멈춰 서 있는 군중에게서 모티브를 얻어 강렬한 색채 팔레트로 작품을 완성하는 줄리안 오피. 2 왼쪽 작품 〈Walking in Sinsa-dong 1〉(Julian Opie, 2012). 오른쪽 작품 〈Walking in Sadang-dong in the rain〉(Julian Opie, 2014). 3 작가 줄리안 오피가 그린 자화상 〈Julian Opie, Julian〉(Julian Opie, 2012). 4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 속 인물들이 실제로 걸어 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LED 패널을 함께 선보였다.



1 거대한 사람의 머리를 형상화한 두 개의 레진 모형이 전시되어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 《Man with a bread and dark glasses holding a water bottle》(Julian Opie, 2013). 3 새롭게 선보이는 서울 보행자 연작인 《Walking in Sadang-dong 3》(Julian Opie, 2014). 4, 5 런던의 보행자들을 담은 LED 애니메이션. 6 레진 모형과 그것을 회화로 옮긴 《Lily, eyes straight, head right, slight smile》(Julian Opie, 2012)

풍과는 무척 다른 감성으로 접근하게 한다. 그것은 쉽게 알아보고 읽을 수 있는 광고 이미지와 같지만 전통적인 캔버스에 올려진 그림이다. 그러나 한 개인의 주관적인 특질을 보여주는 붓질은 부재하고 마치 인쇄된 듯한 비닐 페인팅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다. 이른바 한 화가의 주관성이나 정념적인 특성을 엿보게 하는 표면적인 붓질이나 제스처가 깔끔히 증발된 상태에서 기계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느낌을 강하게 풍긴다. 그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기계에 의해 이루어진 그림에 가깝다. 따라서 우리들 주변에서 흔하게 접하는 무수한 인공의 이미지와 닮았다. 바로 그 점이 대중들이 그의 그림에 친밀감을 느끼는 이유다. 쉽고 밝고 재미있는 이미지, 장식적이고 귀엽고 매력적이다. 더없이 매끄럽게 도포된 비닐 코팅과도 같은 표면은 누구나 쉽게 따라 그릴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하다. 그것은 컴퓨터 상에서 출력된 이미지로 현대사회의 일상에서 수시로 접하는 모든 광고, 출판, 상징적인 인공의 이미지 그대로다. 바로 그러한 경향을 이른바 '팝아트'라고 부른다. 그러니 오피는 1960년대 이후 팝아트의 적자인 셈이다. 그렇다면 60년대 팝아트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영국미술 이야말로 그 팝아트의 계승이고 변안인 셈이다. 영국은 그만큼 팝아트의 영향이 큰 나라다. 줄리안 오피는 1958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골드스미스를 졸업하고 작가로 활동하면서 현재 영국의 대표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일상에서 소재를 취한다. 직접 촬영한 인물과 장소들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드로잉들로 변안되며 이후 디지털 미디어의 어취들로 이루어진 결과물로 도출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또 디지털화 및 인쇄 제작에 있어서의 혁신적인 기술이 그의 그림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오피는 고도로 단순화된 인물 형상을 보여준다. 마치 만화와 같은 그 인물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도시인들이다. 자신의 개인적 삶에서 친숙한 주변인들을 캐릭터화해 차용하는데 그 인물들이 지닌 감정적인 힘을 강렬하게 포착해서 단순하게 응고시킨다.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 자체로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그의 작업은 전적으로 선과 색채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회화는 어찌됐든 결국 선이고 색에 의해 특정 형상을 감동적으로 포착해내는 일임을, 그는 작품으로 강변한다. 또 주변 사람들의 얼굴, 옷차림, 행동 등을 유심히 관찰하고 이를 그림으로 또는 영상으로 옮긴다. 런던의 보행자들을 보여주는 그의 LED 애니메이션 회화 연작은 단순하고 간결하면서 힘 있게 도시인의 속성을 보여주는 한편, 더없이 우아하고 재미난 영상의 한 사례를 안긴다.

그의 화려하고 정교하며 아름다운 일상적 인물들의 이미지는 회화가 지닌 매력을 유감없이 발산하는 동시에 도시 대중의 집단적인 성향과 획일적인 속성을 비판하기도 한다. 바로 그러한 힘이 다름 아닌 진정한 팝아트의 매력인 것이다. S

에디터 정순영 글 박영택(경희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미술평론가) 사진 윤은숙 도움 주신 곳 국제 갤러리(02-735-8449)



불편을 이겨낸 아름다운 뜻그릇, 방짜유기

전통을 고수하는 장인들의 최대 고충은 '제자 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일은 험하고 보수도 적은 데다 미래가 불투명하니 누군들 선뜻 나서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봉주(중요 무형문화재 제77호 방짜유기장) 옹은 다복한 장인이다. 해 넘겨 89세 고령이 됐어도, 일손을 놓지 않을 정도로 정정한 데다, 제자도 여럿이고 게다가 장남을 전수조교로 두었으니 이만한 복이 또 있을까.





1 풍경 치고 이름답지 않은 소리를 내는 것이 있을까? 바람의 걸을 따라, 자진모리로 혹은 세마치로 제 몸을 두드려 우는 풍경. 단단한 방짜로 태어난 녀석은 과연 어떤 소리로 울고 싶을지. 2 반상기 주모이 늘어나자 이봉주 옹은 공구를 개량해 작은 그릇을 만드는 창의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전통은 과거에 대한 '고집'이 아니라 현재에 발을 담근 미래를 위한 '헌신'일 것이다. 3 어느덧 가업을 이은 지 30년을 훌쩍 넘긴 이형근 씨가 불덩이와 마주 앉아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아직 제 얼굴을 못 찾은 놋그릇덩이를 불 속에 담그자, 불꽃이 그의 연주 솜씨에 따라 춤을 춘다.

“전통? 어김없이 보존하고 전승해야죠. 하지만 전통만 고집하고 시대 감각이 떨어진 스승에게 올 제자가 없으니, 수를 내야죠.” 일찌감치 제자들에게 “내 자식 대학 보낼 때, 너희 자식들인들 대학 못 보내게 하겠느냐”고 공언한 그였다. 숯 대신 디젤로 연료를 대체하고 공구를 개량해 작업 효율성을 높인 그는 늘어나는 놋그릇 수요를 감당하며, 궁핍을 면했다. 그런 덕에 경북 문경시 가은읍 갈전리 807-1번지 일대에 조성된 ‘납청 유기촌’은 늘 작업으로 분주하고, 그 흔한 홈페이지 하나 없어도 연일 방문객이 줄을 잇는다.

놋그릇은 근현대사를 거치며 온갖 풍파를 겪은 물건이다. 놋대야 놋요강 없인 시집갈 엄두조차 못 내던 시절이 있었다. 부엌에 놋그릇 구색이 어떻게 갖춰져 있고, 손질은 또 얼마나 잘 돼 있는가를 보고 그 집 안주인의 살림솜씨를 가늠했을 정도로 필수품이었던 놋그릇. 하지만 고난의 시기가 찾아왔다. 일제의 공출로 놋그릇 씨가 말랐던 때도 있었고, 연탄이 주된 난방 연료가 되자 집집마다 일산화탄소에 변색되기 일쑤인 놋그릇을 불편하다는 이유로 고물상에 내다파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렇게 고물 취급을 받으며 수모를 겪었던 놋그릇이 부활한 건 소득 수준이 높아진 이후였다. 10여 년 전부터 예단용 반상기로 각광받으며 놋그릇이 옛 명성을 되찾고 있는 것이다.

대학 졸업 후 자연스럽게 가업을 잇게 된 집안의 대를보인 장남 이형근 씨는 “20여 년 동안 찾은 이가 없어, 궁여지책으로 악기를 만들며 세월을 버텼다”고 전했다. 그가 부친이 있는 문경과 떨어진 안양에서 악기를 주로 제작하는 공방을 따로 운영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물론 독립의 의미도 있었지만 말이다. 명맥 유지를 위한 돌파구로 악기 제작을 선택한 그도 어느덧 방짜유기의 길로 접어든 지 벌써 30년을 훌쩍 넘겼다.

“아버님께서 이제 유기 수요가 많아졌으니, 악기 제작을 접자고 하시지만 그동안 악기를 담당하던 기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계속할 수밖에요.” 그가 오랜 세월 험한 유기 일을 버리지 못한 것도 매정하지 못한 성격 탓이었는지 모른다. 몇 년 만에 하던 일을 바꾸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다는 그는 “아직 끝을 보지 못했으니, 여전히 하는 거죠”라고 말을 뱉었다. 손이 하도 거칠어 사람 모인 자리에서 밥값 한 번 내본 적 없단다. 그는 “워낙 고된 일이라 자식이 이어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건 기우에 불과하다. 노동의 신성함을 믿고 아버지의 손을 닦아가고 있는 그가 아니던가. 당연히 그의 아들 역시 가르치지 않아도 또 강요하지 않아도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손을 닦아갈 것이 분명하다.

지난 1983년, 만약 이봉주 옹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방짜유기의 전통을 잇기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미국이민을 추진하던 그는 문화재로 지정되자, “이것도 팔자려니”하고 이 땅에 눌러앉기로 결심했다. 기실 방짜유기 기법은 그 전에도 전승되지 못할 운명에 놓인 적이 있었다. “제가 고향에 있을 땐 방짜(方字)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북에선 양대유기라고 했으니까요.” 이봉주 옹의 고향인 평북 정주시 마산면 청정동 일대를 가리키는 납청 지역은 방짜유기의 본산이라고 해도 좋다. 안성유기가 손가락 같은 소품을 주로 만들던 생산지였다면, 납청은 전국에 놋대야 등을 대던 주공급원이었다. 남북이 하나의 상권 아래 놓여 있어, 역할 분담이 가능했던 것. 하지만 한

“전통? 어김없이 보존하고
전승해야죠. 하지만 전통만
고집하고 시대 감각이 떨어진
스승에게 올 제자가 없으니,
수를 내야죠”

국전쟁으로 북한에서 공급되던 방짜유기의 유통이 불가능해지자, 평북 박천군 출신의 고 탁창여 씨가 납청 지역의 대장들 100여 명을 월남시켜,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공장을 차렸기에 그 명맥이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한다. 1948년에 월남한 이봉주 웅 역시 이곳에서 방짜유기와 오랜 인연을 비로소 시작하게 되었다. 1958년 스승으로부터 독립한 그는 서울 구로동을 시작으로 일곱 차레나 공장을 옮겨야 했다. “개발에 밀려나기도 했고, 공단에 있을 땐 며칠만 지나도 그릇이 변색돼 배길 수 없었어요. 그러다 이곳 문경으로 내려와 자리를 잡았죠. 제 고향 정주처럼 산자수려한 곳이지요.”

놋그릇은 들었을 때 느껴지는 묵직한 손맛과 맑은 금빛으로 빛나는 외모를 가졌지만, 생김새와 달리 지극히 예민한 물건이다. 공기가 조금만 나빠도 금세 낫빛을 잃고 변색된다. “만드는 과정도 그만큼 예민합니다. 구리와 주석이 78%와 22%로 정확하게 합금되지 않으면 메질을 하는 과정에서 터지거나 갈라지니까요. 전 세계에 유기를 만드는 나라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데, 어디든 다 비율이 같아요.”

과학지식이 없던 옛사람들이 그런 비결을 어찌 알았을까 싶을 정도다. 조금의 불순물도 거부하는 방짜유기와 달리 주물(鑄物)유기는 일부러 아연이나 니켈을 섞어 색을 달리한다. 유독 놋쇠덩어리를 망치로 쳐 만드는 방짜유기만이 그런 예민함을 갖는다는 사실이 신기하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솜씨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일본 독일 등지에는 방짜 기술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물을 보존하고 귀히 여기는 태도는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기 어려울 성싶다. “일본 나라현의 정창원에 간 적이 있어요. 신라시대의 유물로 방짜 수저며 그릇이 즐비하더군요. 이미 신라시대 이전에 방짜 기술이 존재했다는 증거죠. 더 놀라운 건 유물이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보전이 잘 돼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런 문화적 충격 때문이었을까? 이봉주 웅은 고향에 갈 기약이 덧없어지자, 대구시에 자신이 갖고 있던 소장품을 기증해, 방짜유기 박물관을 조성했다.

하지만 여성에게 놋그릇은 여전히 불편한 물건이다. 다루기 무겁고 보관도 어렵다. 그런데 왜 앓다 튀 찾기 시작한 걸까? 예부터 어른들은 놋그릇이 건강에 좋다고 했다. 최근엔 실험을 통해 놋그릇의 항균 및 살균 작용 등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것. 실례로 일본 교과서에는 ‘놋그릇에 피는 파란 곰팡이가 인체에 이롭다’라고 명시되어 있단다. 웰빙이 불편을 앞선 것이다.

수십 년간 아버지의 길을 좇고 있는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의 높은 벽을 뛰어넘을 작정을 하고 있을까? “아버지와 어떻게 다른 작품을 만들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 누군가가 제 물건이 선대와 이런 점에서 다르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되겠죠. 솜씨란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니까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연료와 공구가 개량되긴 했지만 여전히 방짜유기는 이들 부자에 의해 용해와 네뿔질 우김질 등 모두 8단계의 고된 과정을 거쳐 생명의 그릇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수많은 멧자국, 즉 망치질의 흔적이 형언하기 힘든 아름다움을 뽐낸다. 불 맛을 본 놋쇠는 메질을 통해 연단의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제 몸을 드러내고 영롱한 금빛으로 환하게 웃는다. 마치 세월을 겪으며 연륜이 쌓여 하나의 인격체로 완성된 사람의 해탈한 표정처럼. 놋그릇은 그렇게 풍파를 견디고 오늘 우리 곁에 남아 있다. 장인의 거친 손을 거쳐, S

에디터 정순영 글 최태원 사진 이종근 캘리그래피 이규복



1 솥 대신 기름을 써서 불을 때고, 작업공정을 현대화했다곤 하지만 방짜유기 제작은 여전히 강도 높은 노동이 아닐 수 없다. 앞뒤 사정을 모르고 부자의 손을 본 사람은 ‘대체 무슨 험한 일을 했길래’란 생각부터 들 것이다. 2 장인의 손을 대신해 불길을 헤집고 다니던 공구들이 지난한 세월의 흔적을 옷 삼아 걸친 모습이 아름답다. 3 대체 무슨 업인지 아들이 자신의 길을 다시 걷고 있다. 일손을 놓고 밖으로 나서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감기 걸린다고 목소리라도 챙기라며, 성화다.

삼과 홍삼
의인의
美를
완성하
다



봄을 맞으니, 몸이 깨어나다

인삼은 만병통치약이라 했다. 긴 겨울 몸의 기운이 허하고 기력이 달릴 때 인삼, 백삼, 홍삼으로
기운을 돋우는 것이야말로 봄을 맞아 누리는 진정한 심신의 조화로움이 아니겠는가?

푸드 아트 이종국 어시스턴트 최은미, 윤혁석, 박진우 사진 이종근 에디터 김미경





봄을 만나다
백삼 잔치국수와 인삼 튀김





인삼차

삼(蔘)은 말린 것을 백삼(白蔘), 찌서 말린 것을 홍삼(紅蔘)이라 한다. 삼은 식전에 먹는 것이 좋고, 삼을 섭취하면 운동 기능이 향상된다. 인삼을 물에 넣고 끓여 반으로 줄어들면 그 물을 수시로 차로 마셨다. 홍삼은 백삼에는 없는 항산화 작용 성분과 다양한 아미노산, 유기 지방산 등이 함유되어 있다.

Dried ginseng is called White Ginseng, and dried steamed ginseng is called Red Ginseng. Ginseng should be ingested before meals to improve motor skills. Our Korean ancestors drank ginseng tea as folk therapy. They boiled ginseng in water and drank the tea when it was reduced in half. Red Ginseng is rich in antioxidants, amino acids, and organic fatty acids not found in White Ginseng.

백삼 잔치국수와 인삼 튀김

인삼과 백삼은 원기를 보하고, 신체허약, 권태, 피로, 식욕부진, 구토, 설사에 쓰이며 몸의 기능을 높여준다. 선조들은 긴 겨울을 보내고 따스한 봄이 되면 몸의 보신을 위해 인삼을 음식과 함께 섭취해 몸의 기운을 보강하려 했다. 깔끔하게 우려낸 육수와 국수를 말아 오이, 호박, 지단을 더해 백삼 한 뿌리를 얹어 한끼의 식사로 몸을 보신하도록 했다. 특히 겨울을 나며 자라나 두 계절을 거친 봄동은 찬 성질을 지니고 있어 인삼 튀김과 좋은 궁합을 자랑한다.

As Red Ginseng and White Ginseng supplement energy, they are used to relieve weakness, lack of energy, fatigue, lack of appetite, vomiting, and diarrhea. Our Korean ancestors ingested ginseng with food to replenish their energy in spring. They put noodles in clear broth and topped them with cucumber, squash, eggs, and White Ginseng for a light yet healthy meal. Spring cabbage grown in winter stimulates the appetite with its sweet flavor and crunchy texture. Its cool character blends well with deep-fried ginseng.

인삼 정과

얇게 썰어낸 인삼을 꼬치에 은행, 대추와 함께 끼워 그 위에 꿀을 발라낸 인삼 정과는 씹쌀한 인삼과 쫄깃한 은행, 달콤한 꿀이 만나 특유의 달콤쌉싸래한 맛이 일품이다.

Thinly sliced ginseng is skewered with ginkgo and dates and honeyed to incorporate the bitterness of ginseng, the chewiness of ginkgo, and the sweetness of honey for a bittersweet taste. The green ginkgo and the White Ginseng together create a mouthwatering dessert.



자정, 하얀빛을 머금다

맑고 투명하면서도 윤기 나는 피부결을 지닌 피부 미인이 되고자 한다면, 설화수 자정라인을 선택하자. 열에 대한 피부의 힘을 키워 칙칙한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준다.



자정미백에센스

Snowise EX Whitening Serum

칙칙해진 피부를 맑고 화사한 빛의 안색으로 가꾸어주는 미백 에센스. 인삼유래 미백 성분인 백삼 사포닌과 생기있는 안색을 선사하는 백화 사설초, 피부 투명도를 높이는 백삼 다당체 등 세 가지 성분으로 이뤄진 자정삼백단이 피부의 힘을 키워 칙칙함을 개선하고 피부 탄력과 투명도를 높여준다.

백자로 제작된 촛대 우일요. 왼쪽 페이지 작가 윤남의 작품인 카자부에 캔들 홀더는 KCDF 갤러리숍.



자정미백크림
Snowise EX Whitening Cream

촉촉한 보습막이 피부를 감싸 보습 지속력을 높여주고 미백 효과를 활성화해 주는 미백 크림. 피부 진정과 보습 능력을 강화시키는 백합 추출물 성분이 피부 근본부터 다스려 하얀 피부를 완성해 준다. 미니멀한 디자인의 캔들 라이트 더삼공삼.



자정미백스팟
Snowise EX Whitening Spot Serum

빛과 열에 의한 기미, 잡티와 피부 칙칙함을 개선하는 화이트닝 스팟 에센스. 백삼 사포닌 성분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기미와 잡티의 원인을 케어하고 멜라닌의 확장을 차단해 하얀 피부로 만들어준다.

아로마 디퓨저 캔들 스튜디오 블랭크.

에디터 김미경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운(다락)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아영
도움 주신 곳 더삼공삼(02-844-3035), 스튜디오 블랭크(010-9342-4117), 우일요(02-763-2562), KCDF 갤러리숍(02-733-9041)

오, 나의 봄 이야기

이른 봄날의 들판을 보라. 아우성치는 햇살에 놀라 봄풀이 기지개를 켜다. 가지가지 연둣빛이 기다렸다는 듯 반색한다. 냉이와 엉겅퀴는 삼동 추위에도 살아남았다. 그 어린 것들은 소생의 기운을 어디에 숨기고 있었나. 봄은 숨 차오르는 기쁨이다. 봄을 소재로 한 그림은 생명의 몸짓이 화면에서 꿈틀거리고, 덩달아 화가의 붓까지 들뜨게 한다.

봄을 맞은 조선의 청춘들

여인의 봄나들이 길을 구경하자. 청춘의 흥안들은 봄이 마냥 기쁘다. 딱 맞는 그림이 해원 신윤복의 '연소담청'이다. 제목은 '젊은이가 푸른 풀을 밟는다'는 뜻이다. '담청'은 3월 삼짇날 봄풀을 밟으며 노는 일이다. 그 옛날 담청 나갈 때는 옷가지를 울긋불긋 차려입고 삼삼오오 짝을 지었다. 그림에서도 말구종 둘을 뺀 세 쌍의 남녀가 짝을 이루었다. 게스트는 버젓이 말에 올라탄 기녀 셋이다. 조선시대 말을 탈 수 있는 신분은 대체로 높았다. 기녀를 말에 태운 화가는 아마 해원 신윤복이 처음일 터다. 왼쪽 위 맨상투의 사내는 하인이다. 말고삐를 잡아야 할 치가 남의 갓을 들고 있다. 오른쪽 끝에 선 사내 때문이다. 그는 자기 갓을 맡기고 하인의 병거지를 빌려 썼다. 알 만하다. 세 한량들, 오늘 기생들에게 선심 쓰기로 맘먹었다. 말을 기생에게 내주며 고삐 잡이를 자청했고, 담뱃대까지 바친다. 머리에 진달래 꽃고 담배 피우는 기생, 머리 굽적이며 사내가 준 담뱃대를 받아드는 기생, 다들 오늘 만큼은 번듯한 가문의 아씨가 부럽지 않다. 사내들 옷이 여간 아니다. 푸르고 붉은 주머니에 또 푸르고 붉게 누빈 속옷, 긴 띠를 드리우고 짧게 행전을 친 패션에서 돌아온 한량의 감각이 넘친다. 바깥에 걸친 창옷의 앞 두 폭을 뒤로 돌려 꼬리처럼 매달았는데, 한 가닥 하는 패션 리더가 틀림없다. 기생의 차림새는 아주 모던하다. 버들 허리에 동여맨 치마 말기 고름, 등자에 얹은 외씨버선과 신발이, 들뜬 봄날의 행장에 맞춘다. 멋을 제대로 아는 조선 남녀의 데이트가 황홀하기만 하다.

설렘과 슬픔을 간직한여인의 봄

햇발 좋은 언덕, 해토머리 사이로 쭉이 고개를 들면 여인의 춘정은 물이 오른다. 조선 18세기 화가 이방운의 '빈풍도첩'은 담청에 나선 여인의 설렘을 따스한 시선으로 묘사한다. 봄의 정취가 온 동네에 서린 풍경이다. 그림 속에 노랫말이 적혀 있다. '봄날은 햇볕 따스하고, 들리느니 피꼬리 소리. 여인은 바구니 끼고 좁은 길 따라가며 뽕잎 따기 바쁘구나. 봄날은 길고 길어 쭉 뜯기에 좋구나. 여인의 마음 쓰라려라, 공자에게 시집가기 때문이지' 오른쪽 아래, 뽕잎 따는 여인들이 보인다. 뒤편



<연소담청>

신윤복, 18세기, 종이에 채색,
28.2×35.6cm, 간송미술관

< 빈풍도첩 >

이방운, '빈풍도첩' 중에서, 18세기, 종이에 수묵담채,
25.6×20.1cm, 국립중앙박물관



< 봄 캐는 여인 >

윤용, 8세기, 종이에 수묵담채,
27.6×21.2cm, 간송미술관



여인은 앉아서 쭉 뜯느라 바쁘고, 길 따라 걷는 두 여인은 버드나무에 앉은 새들의 지저귀음을 듣는다. 시냇가 철쭉은 농염한데, 버들가지에 봄바람이 울랑거린다. 여인의 마음은 왜 쓰라리나. 봄이 왔으니 귀공자 품에 안기겠지만 부모 곁을 떠나 새살림 꾸릴 생각을 하니 한편에는 걱정, 다른 한편에는 설렘이 교차한다.

몸소 봄을 맞이하는 들판의 아낙네

춘정에 겨워 싱숭생숭한 청춘에 비해 흠내 물씬한 저 여인네의 속내는 어떠할까. 고개 둘러 어딘가를 지켜보는 '봄 캐는 여인'의 뒷모습이다. 선바람에 나신 매무시가 아무지다. 머리쓰개로 삼은 수건의 매듭이 도톰한데, 그녀의 솔터백은 짙으로 만든 망태기다. 어깨에 메고 허리춤에 드리웠다. 소맷부리는 팔뚝이 드러나도록 감아 올렸다. 치맛주름이 흐트러진 깃은 자락을 허리 위로 올려붙인 탓이다. 제 땀에는 무릎 굽히기가 편하게끔 손봤다. 흥미롭기는 살짝 드러난 속바지다. 양쪽 가랑이를 무릎께에 묶어 반바지 길이로 맞췄다. 들메끈을 한 짚신, 호미자루를 그려잡은 손아귀, 근골이 세찬 장판지 등에서 믿음성이 절로 생긴다. 눈여겨보라, 봄벌에 그을린 살갓이 좀 탱탱한가. 조선 후기의 선비화가 윤용이 이 미덥고 정겨운 여인을 그렸다. 농사꾼의 아내는 손에서 호미가 떠나지 않는다. 저 여인의 스타일은 부러 부린 멋이 아니다. 모름지기 봄날의 일이 패션을 만든다. S

에디터 정순영 글 손철주(미술평론가)

햇발 좋은 언덕, 해토머리 사이로 쭉이 고개를 들면 여인의 춘정은 물이 오른다. 조선 18세기 화가 이방운의 '빈풍도첩'은 답청에 나선 여인의 설렘을 따스한 시선으로 묘사한다. 봄의 정취가 온 동네에 서린 풍경이다.



피부의 귀환을 알리는 하얀빛 다스림

설화수만의 귀한 피부 다스리기 비책 '설안'으로 피부 안팎의 빛이 환하게 깨어나는 순간, 내 몸과 마음에 조화로운 균형을 만들어줄 진정한 빛의 기운을 느껴라.

미세먼지와 유익하지 않은 3월의 햇빛에 한없이 거칠고 칙칙해진 환절기 피부를 위해 설화수 스파가 내놓은 비책은 바로 '설안'. 일상의 스트레스와 피로로 지친 현대인들의 심신을 전통 요법으로 치유하는 설화수 스파의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설안' 프로그램은 총 90분간 설화수의 미백라인인 '자정라인'의 고기능성 화이트닝 제품들로 알차게 채워진다. 백화 사설초, 백삼 사포닌, 백삼다당체 3가지로 구성된 설화수의 오랜 연구가 집약된 '자정삼백단'을 핵심으로 만든 설화수 '자정라인'은 자외선과 적외선은 물론 노화 등으로 칙칙해진 안색을 가꾸어 준다.

우선 설화향, 인삼씨 등을 이용한 족욕으로 시작, 등 설화정으로 가볍게 릴렉싱 트리트먼트 한 후 뭉친 어깨 근육을 관리하여 몸의 독소를 제거한다. 다음 얼굴로 올라가 얼굴 설화정과 클렌징 단계를 거친 후 설화수 스파의 시그니처 관리인 윤조 트리트먼트로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미백 관리에 앞서 림프샘을 자극해 피부의 순환 통로를 열어주고 나면, '자정라인'을 활용하여 손을 이용해 얼굴 전체를 골고루 트리트먼트하여 미백 효과를 극대화한다.

모델링 마스크 팩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손, 발, 종아리까지 온몸 전체를 트리트먼트한 후 자정라인으로 마무리하면 한층 환해진 안색은 물론 마음마저 차분하고 평온해지는 트리트먼트의 진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S

에디터 나보미 사진 이은숙 도움 주신 곳 설화수 스파(롯데호텔 서울점 02-318-6121)

* 설화수 스파는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의 철학과 가치를 전문가들의 손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홈페이지 www.sulwhasoo.co.kr

롯데백화점 잠실점(4층) 운영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의 02-411-0262

롯데호텔 서울점 운영시간: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문의 02-318-6121



환절기 피부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설안'은 설화수 미백라인인 '자정라인'의 고기능성 화이트닝 제품들을 사용한다.

Sulwhasoo Spa's solution for rough and dull skin due to exposure to microdust and the strong March sunshine is the "Seoran(Brightening Boost) Program." It is the new whitening program of Sulwhasoo Spa that heals the bodies and minds of modern people worn down by everyday stress and fatigue with the traditional Korean herbal medicinal therapy.

The 90-minute program is completed with the high-performance whitening products of Sulwhasoo's Snowise EX Line. Sulwhasoo Snowise Line, formulated with Snowise Tri-white Complex™ which is the mixture of White Cloud Grass™, white ginseng saponin, and white ginseng polysaccharides completed with Sulwhasoo's long years of research, refines the dull complexion affected by UV rays, infrared rays, and aging. It begins with a foot bath with Sulwha Fragrance and ginseng and gently relaxes the body with Sulhwajeong on the back. The back treatment releases the stiffness of the shoulders to remove the toxins from the body. Next, go back to the face for Facial Sulhwajeong and cleansing to enter Sulwhasoo Spa's signature First Care Treatment. Stimulate the lymphatic glands to open up the circulation channel before the whitening program and massage the Snowise Line onto the entire face using your hands to maximize the whitening effect. The modeling mask is then applied, and the entire body is massaged, including the hands, feet, and calves, and finishing is done with Snowise EX Line. You will experience the true value of Korean herbal medicinal treatment that brightens the skin complexion and tone and tranquilizes the mind.

이백 년을 내려온 아름다움의 비법

희고 곱이 아름다운 피부를 향한 여인들의 마음은 시공을 초월한다.
고서에서 여인들의 지혜로운 비법을 찾을 수 있었다.



1809년, 순조 시절에도 살림의 여왕은 있었다. 조선시대 여인들은 나랏일에서 우두머리가 될 수 없었지만, 그들을 묵묵히 원조하는 역할을 했다. 조용히 지혜를 발휘하는 역량은 나랏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집안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도 여인들의 몫. 절기에 맞춰 몸에 좋은 음식을 내고 피부를 관리하는 방법을 달리했음을 우리는 <규합총서>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규합총서>는 당대 최고의 살림꾼 빙허각 이씨가 엮은 책으로, 세세하고 분명한 방법을 담아내는 정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규합총서>의 서문에는 '이 모두가 양생하는 선무요, 치가 하는 요법이라 진실로 일용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요, 부녀가 마땅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 책의 내용은 집안, 나아가 가족의 안녕을 위한 방법을 담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규합총서>는 주사의, 봉입축, 산가락, 청낭결, 술수략 등 크게 다섯 분야로 내용을 정리하는데 입는 법, 먹는 법, 농사짓는 법, 아이 기르는 것과 건강을 관리하는 법, 집을 가꾸는 법이 그에 속해 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카테고리에서 필자가 한결같이 권하는 사항은 '얼굴과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며, 모든 일을 할 때 몸가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며 조용하고 청결하게 대한다'는 것이다. 태도에 관해 언급하는 당시 그는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머리는 까맣고 피부는 희게 유지하기 위해 계절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소개했는데, 그중 도화면과 면지법의 내용을 보면 그의 지혜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복제 노사침의 아내 최씨가 봄날 복사꽃을 흰 눈에 섞어 아이들 얼굴을 씻기니, 빛이 나고 윤기가 있으며, 홍화를 따다가 얼굴을 씻기면 고와진다고 했다.'

도화면에서 말하는 복사꽃(복숭아꽃)은 비타민 A, C가 풍부해 염증을 완화하는 작용을 하고 피부결을 밝고 균일하게 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 화장수의 재료로 많이 쓰이는 성분이다. 흰 눈은 당시 봄이 될 때 귀하게 드문드문 내리는 것을 채집해 정제수의 용도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홍화는 연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로 이것으로 얼굴을 씻으면 혈색 있는 피부로 가꿀 수 있다고 한다.

면지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겨울에 얼굴이 거칠고 터지는 데 달걀 세 개를 술에 담가 두껍게 봉하여 나흘이나 일주일쯤 두었다가 얼굴에 바르면 트지 않을뿐더러 윤이 나고 옥 같아진다고 기록돼 있다. 달걀은 열을 제거해 오장을 편하게 하고 피부에 바르면 기미와 주름에 영양을 공급한다. 술의 알코올 성분은 피부를 소독하는 동시에 달걀의 변질을 예방하고, 이를 밀봉함으로써 세균의 번식을 방지하기도 했다.

이백여 년 전 기록에서 아름다움을 얻기 위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해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현대과학이 크게 발전한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재미있는 대목이다. S

에디터 나보미 사진 문성진 참고도서 <규합총서>(정양환, 보진재) 도움 받은 곳 광주요 한남점(02-3446-4800)



| 영화 |

사랑은 도시락을 타고 〈런치 박스〉

잘못 배달된 도시락, 얼굴도 모르는 그녀와의 사랑의 감정. 보고 있으면 그 순수한 사랑에 절로 미소 짓게 되는 영화, 인도판 러브레터 〈런치 박스〉가 드디어 한국에 상륙한다. 에디터 나보미



영화 〈런치 박스〉는 부인들이 만든 도시락을 남편 회사에 배달시키는 인도 뭍바이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를 소재로 만든 인도 영화로 〈내 이름은 칸〉을 전 세계적으로 흥행시킨 제작진의 또 다른 야심작이다.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한 한 중산층 가정의 부인이 남편에게 보낸 점심 도시락에 넣은 편지가 다른 남자에게 배달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따뜻한 휴머니즘 드라마 〈런치 박스〉는 칸 국제영화제 관객상을 수상,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은 뛰어난 작품이다. 이 영화는 미국은 물론 이탈리아, 스위스,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의 나라에 연이어 개봉되어 좋은 흥행 성적을 거둔 바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10월 부산 국제영화제에 상영된 후 올 4월 개봉을 확정지었다.

독특한 소재와 탄탄한 각본은 물론 섬세한 감정표현을 훌륭하게 그려낸 인도 배우들의 명품 연기 또한 훌륭한 볼거리다. 〈라이프 오브 파이〉 〈슬럼독 밀리언어〉 등으로 일약 인도의 국민배우로 올라선 이르판 칸과 인도의 제시카 고메즈로 불리는 님랏 카우르의 연기가 그림 같은 하모니를 이루며 작품을 빛낸다. 〈런치 박스〉는 제2의 할리우드라 불리며 매년 다양한 장르의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쏟아내고 있는 인도 영화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인도의 문화와 사랑에 관한 잔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따뜻하게 전해 줄 것이다.

감독 리테쉬 바트라 **출연 배우** 이르판 칸, 님랏 카우르, 나와주딘 시디퀴 **개봉일** 4월 10일

〈노예 12년〉



단 한순간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한 흑인의 12년간의 기록, 영화 〈노예 12년〉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 184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어느 날 흑인 음악가가 납치되어 악명 높은 노예제도가 있는 루이지애나로 팔려가며 노예 신분으로 살아야 했던 고통과 좌절, 희망을 그렸다.

감독 스티브 맥퀸 **출연배우** 치웨텔 에지오포, 브래드 피트 **개봉일** 2월 27일

〈우아한 거짓말〉



작가 김려령의 소설 〈우아한 거짓말〉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개봉된다. 마트에서 일하며 홀로 두 딸을 키우는 엄마 현숙과 두 딸 만지와 천지. 힘들지만 행복한 어느 날 막내 천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동생의 친구들을 우연히 만난 만지는 가족들이 몰랐던 숨겨진 동생의 이야기를 알게 된다.

감독 이한 **출연 배우** 김희애, 고아성, 김유정 **개봉일** 3월 13일

〈원 천스〉



어릴 적부터 세계적 오페라 스타가 되고픈 폴 포츠. 하지만 그는 그저 영국의 평범한 휴대전화 판매원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오페라를 향한 그의 끊임없는 도전은 결국 TV 오디션 프로그램의 우승자로, 그리고 드디어 그의 이상 루치아노 파바로티를 만나는 드라마틱한 기적까지 만들어낸다.

감독 데이빗 프랭클 **출연 배우** 제임스 코든, 알렌산드라 로치, 콤 미니 **개봉일** 3월 13일

〈두갈, 마법의 회전목마〉



유쾌한 애니메이션 〈두갈〉이 어린이들의 동심을 자극한다. 시탕을 좋아하는 못 말리는 강아지 '두갈'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마법의 회전목마에 가뒤퍼리는 악당 '지베드'와의 쫓고 쫓기는 대결이 흥미진진하다. 신비한 힘을 가진 마법의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서는 두갈의 여행 속으로 함께 떠나보자.

감독 데이브 보스워 **진 디발** **출연 배우** 로비 윌리엄스, 이안 맥켈런 **개봉일** 3월 6일

| 콘서트 |

봄을 두드리는 피아노 선율 허원숙 피아노 리사이틀

3월, 피아니스트 허원숙이 2007년 이후 오랜만에 새 앨범을 선보인다. 새로운 음반 발매를 기념하여 열리는 4월의 피아노 리사이틀 또한 싱그러운 봄날의 향기를 더하는 따뜻한 시간이다.



2014년 4월 4일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에서 허원숙의 피아노 리사이틀이 열린다. '88개의 피아노 건반 위에서라는 타이틀로 청중과 만나는 허원숙의 이번 리사이틀은 3월 그녀의 새로운 음반 발매를 기념하기 위한 공연이다.

피아니스트 허원숙은 서울대학교 음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피아노과를 졸업한 수재로 유학 중 발세시아 국제 콩쿠르 1위를 비롯해, 비오티 국제 콩쿠르, 포츨리 국제 콩쿠르, 마르실라 국제 콩쿠르 등 다양한 국제 대회를 휩쓴 명실상부 한국의 대표 여성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이다. 현재 호서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그녀는 독주회, 각종 오케스트라와 교향악단과의 협연뿐 아니라, KBS 클래식 FM의 〈당신의 밤과 음악〉의 한 코너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클래식과 대중을 만나게 하는 소통의 역할을 해왔다. 최근 유럽의 대표적인 레이블, 폴란드의 음반회사 DUX와 독주 CD를 녹음하며 데뷔 앨범을 발표하는 허원숙은 앨범 발표와 더불어 열리는 이번 피아노 리사이틀에서 음반 수록 작품인 세자르 프랑크의 〈프렐류드, 코랄과 푸가〉와 모리스 라벨의 〈쿠프랭의 무덤〉, 이건용의 〈여름빛에 관한 세 개의 악상〉(2012),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코렐리 변주곡, 작품번호 42〉를 연주하며, 폴란드 작곡가 마리안 보르코프스키의 〈토키타〉(1960)는 한국에서 초연될 예정이다. 그녀의 깊은 감성과 다채로운 변주가 4월을 따뜻하게 감쌀 것이다.

일시 4월 4일 **장소**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 **문의** 1544-5142 **관람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존 맥러플린 내한 공연



존 맥러플린과 그의 밴드 'The 4th Dimension'이 한국을 찾는다. 록, 재즈, 인도 전통음악 등 모든 음악적 관심을 한데 모은 결정판으로 진정한 접근, 자연스러운 기교, 깊은 서정성 등 일흔둘 재즈 뮤지션이 선사하는 진정한 퓨전 재즈를 경험할 기회다. **일시** 3월 20일 **장소**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맥 **문의** 02-941-1150 **관람료**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2014 러시아워 콘서트



'복잡한 퇴근시간, 생맥주처럼 가볍게 들이키는 공연 한 편'의 콘셉트로 2011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워 콘서트가 더욱 강력한 라인업으로 2014년에 다시 돌아왔다. 개성 넘치는 뮤지션 하림, 집시&피시 오케스트라와 어어부 프로젝트가 무대 위를 꽉 채워 일상의 피로를 기분 좋게 날려줄 예정이다. **일시** 3월 14일, 4월 11일 **장소** LG아트센터 **문의** 02-2005-0114 **관람료** 전석 2만원

존 메이어 내한 공연



이 시대 가장 완벽한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로 평가받는 뮤지션, 존 메이어가 헌대카드 컬처프로젝트의 열네 번째 주인공으로 첫 내한 공연을 갖는다. 그동안 내한 요청이 쇄도했던 최고의 아티스트인 만큼, 존 메이어만의 블루스 감성을 담은 풍부한 기타 연주와 히트곡들을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일시** 5월 6일 **장소**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문의** 02-3141-4956 **관람료** R석 13만 2천원, S석 11만원

더 베이스 갱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단원,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베이스리스트 등으로 활동한 네 명의 더블베이스 주자들이 구성된 엔터테인먼트 밴드 더베이스의 내한 소식이다. 클래식 오페라 아리아 재즈에서 팝과 록에 이르는 명곡들을 개성 넘치는 편곡으로 소개한다. **일시** 3월 21일 **장소** 평촌아트홀 **문의** 02-927-2849 **관람료** VIP석 5만원, R석 3만원

따로 또 같이, 한국 근현대 거장전 〈예수와 귀먹은 양〉 〈DEEP & WIDE〉 〈우보천리〉

고난과 역경의 시대를 지나온 우리 한국 근현대 미술 대기들의 발자취와 예술혼을 조명하는 서울 미술관의 삼색 전시.



서울 미술관이 소장한 대작들과 일부 컬렉터들의 작품을 더해 선보이고 있는 한국 근현대 거장전은 〈예수와 귀먹은 양〉 〈우보천리〉 〈DEEP & WIDE〉 이렇게 총 세 가지 기획전으로, 각각의 세 전시를 근현대 거장전이라는 타이틀로 묶어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예수와 귀먹은 양〉은 한국 현대회화사에 독창적인 화풍으로 우뚝 선 우보 김기창의 탄생 백 주년을 맞아 개최된 전시다. 그의 최고 걸작 가운데 하나인 '예수의 생애' 시리즈를 중심으로 인물화, 청록산수, 바보산수, 바보화조 등 다양한 경향의 대표작들을 만나볼 수 있다.

〈DEEP & WIDE〉는 '깊고 넓게'라는 타이틀이 시사하듯 우리 근현대 미술가들의 탁월한 통찰력과 상상력을 보여준다. 김환기의 서정적 추상, 절제된 구성의 미학이 돋보이는 유영국의 구성적 추상, 구상과 추상이 만나 새로운 조화미를 만들어내는 김홍수의 하모니즘 회화 등 넓고 심도 있는 미학을 꿰뚫어볼 수 있는 전시다.

〈우보천리〉는 '우직한 소꿉음으로 천 리를 간다'는 의미로 힘겨운 역경의 시대를 지나온 한국의 근현대 미술 역사와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 자연주의 시각으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그린 도상봉, 서민적 삶을 두꺼운 마티에르의 화면에 담은 박수근, 이중섭, 천경자 등 근현대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두루 만날 수 있다.

일시 3월 16일 장소 서울 미술관 문의 02-395-0100 관람료 무료

〈한경우 개인전 I MIND〉



한경우 작가의 개인전 〈I MIND〉가 송은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송은 미술대상'의 2011년 개편 이후 첫 대상 수상작가인 한경우는 대표적인 신진 설치작가로 이번 개인전 또한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대상을 탐구하는 통찰력과 철학을 그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일시 4월 12일까지 장소 송은 아트스페이스 문의 02-2698-7411 관람료 무료

〈사진과 미디어 : 새벽 4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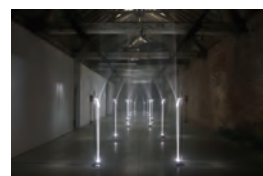
서울 시립미술관(SeMA)이 선보이는 사진전 〈사진과 미디어 : 새벽 4시〉는 현대인의 다중적 자아를 주제로 한다. 본 전시는 사진작가들의 작품뿐 아니라 작가들의 영상 및 설치 작업, SNS에 업로드되는 사진을 이용한 참여형 영상 설치작업을 포함하며 다양한 형식의 사진을 아우르고자 하였다. 일시 3월 23일까지 장소 서울 시립미술관 문의 02-2124-8937 관람료 무료

〈알레프 프로젝트〉



이 전시는 21세기 신개념 이론인 복잡계 네트워크 이론을 적극 수용하여 이론가, 큐레이터, 건축가, 디자이너, 천체학자, 물리학자, 뉴미디어 아티스트, 사운드 아티스트, 연출가, 퍼포머가 협력하고, 관객이 참여하면서 장르를 넘나드는 첨단 신미술 프로젝트다. 일시 3월 16일까지 장소 국립 현대미술관 문의 02-3701-9500 관람료 5천원

〈TROIKA〉



조각, 건축, 설치의 영역을 넘나드는 실험적 작업으로 알려진 아티스트 그룹 트로이카가 〈TROIKA(가제)〉를 통해 국내에 상륙한다. 트로이카의 기발한 아이디어에 과학적인 원리를 도입해 색다른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일시 4월 10일~10월 12일 장소 대림미술관 문의 02-720-0667 관람료 성인 5천원, 청소년 3천원, 어린이 2천원

매혹의 미스터리 성장소설 〈우리가 밤에 본 것들〉

햇빛에 1분도 노출되면 안 되는 세 아이들이 기괴한 사건을 목격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밤이 주는 고요하고 신비스러운 느낌과 함께 펼쳐지는 웰메이드 스릴러의 매혹적인 미궁 속으로.



단 한 편의 데뷔작만으로 미국 전역을 휩쓴 밀리언셀러 작가 재클린 미처드의 신작 장편소설 〈우리가 밤에 본 것들〉이 출간되었다. '결코 독자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작가'라는 평을 받고 있는 재클린 미처드는 섬세한 인물의 심리 묘사와 거미가 집을 짓듯 촘촘히 엮어가는 서스펜스와 맞물리면서 한층 완성도 높은 미스터리 소설을 탄생시켰다.

색소성 건파증을 앓고 있는 세 명의 어린 xp 환자 앨리, 로브, 줄리엣. 엄지 손가락만큼이라도 햇빛에 노출되면 생명이 치명적인 희귀병을 앓고 있는 세 친구에게 어느 날 밤 사건이 일어난다. 앨리가 우연히 끔찍한 사건을 목격하게 되고, 의도치 않게 범인을 추적하면서 이에 휘말리게 되는 것. 〈우리가 밤에 본 것들〉은 예측할 수 없는 반전과 스토리텔링으로 생동감 있는 긴장을 선사하는 스릴러인 동시에 성장 소설이다. 첫사랑의 설렘같이 우리들 우리들이 있고 지냈던 풋풋한 유년기의 순간들을 회상하게 하는가 하면 물리적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세상의 주변부에서 맴돌고 있는 모든 소외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포함한다.

진솔하고 생생한 인물들의 캐릭터, 흔히 접할 수 없는 익스트림 스포츠 파쿠르, 색소성 건파증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그려내고 있는 〈우리가 밤에 본 것들〉은 마지막까지 몰입하게 하는, 그야말로 모자이크처럼 다채로운 언어의 조각들로 창조한 매혹적인 미궁 속으로 우리를 이끈다.

지은이 재클린 미처드 출판사 푸른숲

〈개포동 김갑수 씨의 사랑〉



〈마녀사냥〉 〈썰전〉에서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세남, 하지웅이 5년 만에 신작을 발표했다. 그가 처음으로 쓴 소설 형식의 연애담인 이 작품은 하지웅이 솔자리에서 이따금 마주치는 개포동 김갑수 씨의 망한 연애 이야기. 하지웅 특유의 재기발랄한 문장들 사이에 보통 사람들의 생활상과 연애사가 애잔하게 그려진다. 지은이 하지웅 출판사 아우름

〈박쥐〉



노르웨이의 국민 작가이자 인기 뮤지션, 저널리스트 그리고 경제학자인 요 네스비의 소설 〈박쥐〉는 노르웨이 여인의 살인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집요하게 파고드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미스터리 스릴러다. 사건에 다가갈수록 점점 더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휘말리는 긴장감 넘치는 스릴감이 요 네스비 특유의 필체로 살아난다. 지은이 요 네스비 출판사 비체

〈같이 오길 잘했어〉



엄마와 딸이 난생처음으로 함께 떠난 14일간의 인도 배낭여행 에세이다. 타지마할부터 갠지스 강 화성터까지, 전통시장 찬드니 초크부터 인도 최대 변화가 코넛 플레 이스까지. 이처럼 두 여자는 인도 대표 여행지를 거침없이 누빈다. 여행을 통해 서로를 발견하고 정을 쌓아가는 따뜻한 모녀의 이야기가 흥미로우면서도 감동을 준다. 지은이 유승혜 출판사 리스컴

〈셀프 파워〉



셀프 파워란, 누구도 아닌 자신을 위해 움직이며 스스로 성장하는 힘을 의미한다. 30년간 글로벌 현장을 누비며 셀프 파워로 일하는 사람과 조직의 힘을 체득한 저자가 돈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빠른 시간 대신 '옳은 시간'으로 일하는 셀프 파워의 힘, 즉 자신의 성취를 만들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현실적인 지침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지은이 김종식 출판사 오우아

공연 관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명작 소설 <프랑켄슈타인>이 뮤지컬로 탄생한다.
대한민국 창작 뮤지컬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그 매력적인 스텔러 세계로의 초대.



<Sulwhasoo> 독자 선물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을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 엽서를 이용해 응모 가능하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람 일정 4월 16일 수요일 8시

공연 장소 충무아트홀

공연 티켓 R석 5명(1인 2매)

* 티켓은 관람 당일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충무아트홀이 개관 10년을 맞이하여 야심차게 준비한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이 올 3월 드디어 첫 베일을 벗는다. 대한민국 뮤지컬 산업의 기반을 다져온 충무아트홀의 자체 제작으로 새롭게 탄생한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영국의 천재 여성작가 메리 셸리(Mary Shelley)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원작으로 한다.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캐릭터에 있다. 주인공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의학, 과학, 철학을 아우르는 천재로 인류에 공헌하고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지만, 결국 자신이 창조해낸 피조물에 의해 파국으로 치닫는 인물. 이 매력적인 역할에는 TV, 영화, 뮤지컬 무대를 총횡무진 누리며 다양한 캐릭터로 소화하는 배우 유준상과 믿고 보는 뮤지컬 분야의 톱 배우 류정환, 다양한 대형 뮤지컬의 주역을 맡으며 탄탄한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는 배우 이진명이 맡았다. 이밖에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조력자 '앙리 뒤프레'역에 박은태, 한지상, 빅터의 약혼녀 '줄리아'역으로 리사, 안시하 등 내로라하는 국내 뮤지컬계의 명품 배우들이 나란히 캐스팅되어 관전의 재미를 더한다. 뮤지컬 <삼총사> <잭더리퍼> <보니앤클라이드> 등을 연출하며 국내 최고의 뮤지컬 연출가로 각광 받고 있는 왕용범 연출이 맡아 완성도를 높였고, 배우들 모두가 음악에 반해 출연을 결정할 정도로 뮤지컬을 압도하는 웅장하고 세련된 음악 또한 백미다.



오는 3월 18일부터 5월 11일까지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국내에 선보인 후, 앞으로 지속적인 공연과 전국 투어를 통해 베스트셀링 뮤지컬로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중국과 일본 등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할 예정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창작 뮤지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또 하나의 걸작 탄생이 예고된다. 뮤지컬을 사랑하는 국내 팬들에게 <프랑켄슈타인>은 준비된 명품 공연이 될 것이다. S

에디터 나보미 도움 주신 곳 충무아트홀

한국에 스미다, 설화수에 스미다

세계 속의 설화수, 그 도약의 새로운 이름
'자정라인'을 글로벌 프레스 트립에서 만나다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 설화수는 '자정라인'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힘찬 도약을 내디뎠다. 지난 1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설화수 글로벌 프레스 트립이 그중 하나인데, 설화수는 동양적인 아름다움과 정서를 간직하고 있는 아시아 3개국(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약 20여 명의 핵심 미디어를 한국으로 초대해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다. 첫날 오후 오산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스토리 가든을 방문한 아시아 미디어 팀은 아모레퍼시픽의 역사와 비전은 물론 공장 견학을 통해 생산라인과 구조를 직접 보며 이해하고, 저녁엔 소공동 롯데호텔 본점에 위치한 설화수 스파에서 자정라인으로 구성된 스파 프로그램 '설안'을 체험했다. 설화수 자정라인의 화이트닝 특징을 극대화한 설안 프로그램을 몸소 느껴보며 그 기능과 효과 및 브랜드에 대한 경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튿날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화장품 용기를 포함한 도자기와 조각, 금속공예 등 한국의 전통 유물들을 관람하며 단아하고 고급스러운 한국의 미를 만끽했다. 이후 일정은 설화수의 본질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한방 화장품 연구팀과 설화수 글로벌 마케팅팀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설화수의 비전과 자정라인을 보다 심도 있게 소개해 미디어 팀의 활발한 제품 토론이 이뤄졌다. 마지막 일정은 체험단의 숙소인 서울 남산에 위치한 반얀트리 클럽앤스파의 아이스링크에 설화수의 자정라인과 새하얀 눈을 접목, 스노 스케이트 체험장을 연출해 현지에서

접하기 힘든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이색체험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설화수 글로벌 프레스 트립은 제품 소개는 물론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개개인의 참여도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선전함과 동시에 설화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시간이었다는 평이 이어졌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긴 여운을 남긴 설화수 '자정라인'의 글로벌 프레스 트립. 세계를 향한 설화수의 힘찬 도약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S





page 18 | **Meet the Sulwhasoo**

She knows that the public spotlight on her is based on her unique path to quitting KAIST to perform the unfamiliar instrument called Bandoneon, rather than her profound interest in music. What she really wants to talk about, however, is what comes after the transition. This issue interviewed Go Sang-ji, the one and only performer of Bandoneon in Korea, which is an instrument similar to a classical magic box and a lighter accordion. We listened to her reason for falling for this unfamiliar, mysterious, and rather intricate instrument.



page 24 | **Quality Life**

Our Korean ancestors, who enjoyed poetry and songs amidst flowers and surrounded by beautiful sceneries, said that spring is a flower. As Eosahwa on the heads of scholars who passed the national examination symbolized glory, the flowers with positive meanings such as beauty, glamour, prosperity, and glory expressed for them 'the most beautiful and happiest moments of life'. In this issue, we remember the spring days of our Korean ancestors, who enjoyed scenes of fully bloomed flowers.



page 40 | **Seeing in Detail**

Yellow, the color that represented the king in the past, is the core of the Five Traditional Colors. It is directed to the center of the four directions, and represents the center of the universe. The neutral yellow is the color of tolerance of the four seasons and the color of abundance in the land. In the True Records of King Sejong, it is stated that yellow rain fell in the 21st and 23rd years of King Sejong as a sign of a good harvest. Yellow, for the energy of life, is the light of Mother Nature and the light of vitality that signals the birth of the universe.



page 52 | **World Heritage**

Limoges porcelain is as white as snow, clear and beautiful in and of itself, and even looks strong. Porcelain has continued to evolve since the 19th century, and porcelain masters have never stopped designing and making premium porcelain. The passion for white gold, cherishing both modern sentiments and elegance: this is why Limoges porcelain is still loved today.

page 58 | **Art Class**

Julian Opie's paintings have no smell of sweat. The characters in her paintings do not laugh, cry, or look at one another. The faces are boldly omitted and expressed in dots or lines, or even in nothing. Julian colors the indifferent landscapes of anonymous characters with bright colors. Julian Opie's second exhibition after 2009 presented LED panels and large resin sculptures that conveyed his sustained interest in 'walking people'.



page 64 | **Succeed**

The biggest challenge of the traditional masters is finding devoted pupils. Who would volunteer to pursue a job that is arduous, pays less, and does not guarantee security? In this respect, Sir Lee Bong-joo (Master of Brassware, 77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 very lucky master. He turned 89 years old this year, but he is still healthy enough to work with several pupils and with his eldest son as his training assistant. Could anyone be luckier than he?



page 80 | **Sulwhadogam(雪花圖鑑)**

Look at an open field in early spring. The spring grass stretches out, alarmed by the shout of sunshine. The green leaves greet the sunshine on every branch. The Shepherd's purse and thistle have survived the cold of winter. Where were they hiding the energy of life? Spring brings breathtaking joy. The gestures of life wriggle in paintings of spring, imbuing excitement into the brushes of the painters.



page 84 | **Beautybogam**

Sulwhasoo Spa's solution for rough and dull skin exposed to microdust and the strong sunshine of March is the Seoran(Brightening Boost) Program. The Seoran Program is the new whitening program of Sulwhasoo Spa that heals the bodies and minds of modern people tired due to everyday stress and fatigue, with traditional Korean herbal medicinal therapy. The 90-minute program is completed with the high-performance whitening products of Sulwhasoo Snowise EX Line.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독자 엽서를 적어서 보내 주세요. 보내 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독자 엽서를 보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내의 독자 엽서로 우편을 이용해서 응모
- 응모 마감** 2014년 4월 15일까지 (뮤지컬 관람권 응모 마감은 3월 31일까지)
- 증정 선물** 설화수 윤조에센스,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관람권
- 당첨자 발표** 2014년 5/6월호 독자 선물 당첨지란 참조
- 문의** 02-709-5525



설화수 윤조에센스(5명)

풍부한 촉촉함과 윤기를 더해 피부를 윤택하게 보필해 주는 세안 후 처음에 사용하는 부스팅 에센스입니다. 자음단이 피부의 다섯가지 균형을 바로잡아 숙부터 촉촉한 윤기를 만들어줍니다.

문의 080-023-5454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관람권(5명)

대한민국 창작 뮤지컬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공연 관람권을 5명(R석, 1인 2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4월 16일 8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며, 티켓은 관람 당일 충무아트홀 공연 현장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92페이지 참조

1/2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설화수 미안피니셔(5명)

- 이순희 대구 남구 대덕로
- 김인숙 광주 서구 금호동
- 구순애 경남 창원 성산구 원이대로
- 손영이 전북 순창군 순창읍
- 서정현 부산 동래구 운천동

뮤지컬 <해를 품은 달> 관람권(6명)

- 박주연 서울 양천구 신정로
- 김광자 경기 수원 권선구 수성로
- 유정은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 정순희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 강경화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 이영자 서울시 동작구 대방로
- 이슬비 서울시 송파구 잠실본동

★ 1/2월호 당첨자 선물은 3월 31일까지 보내 드립니다.